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 연구진 | 김이수 · 김수은 · 진지혜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 전북
발전연구원 [편].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4
p. ; cm. -- (Jthink ; 2013-PR-05)

권말부록 수록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081-9 93350 :

지방 행정[地方行政]

전라북도[全羅北道]

359.1191-KDC5

352.1409519-DDC21

CIP2014001658

연구진

연구책임 김이수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진 김수은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진지혜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자문위원 • 전라북도

연구관리 코드 : 12JU2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약

I.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4.7).
- 전북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FTA에 대응하여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식량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 식품 및 식량안보에 대비하며,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책 사업(새만금사업, 국가식품산업단지)을 견인할 수 있음.
- 특히, 농생명 식품 관련기관의 안정적, 지속적인 인력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한 농생명식품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며, 연구효과의 파급과 기업 확산을 통해 전라북도의 타 국책산업벨트(내륙특화산업벨트를 비롯해 새만금신산업벨트, 주력 기간산업벨트, 서해안 녹색에너지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최근 KTX개통,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지방연구개발역량 확충 등의 여건 변화로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를 매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기회요인들이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하에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완료될 경우, 전북 지역에는 이전기관들을 매개로 산·학·연 협력,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측면의 이전효과가 예상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토대로 이전효과를 유형화하고, 이를 근거로 이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전기관별로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유형화.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협력 사례 분석.
- 공공기관 이전사례(국내외 사례) 분석.
-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효과를 산학연 협력 측면, 인력양성 측면, 민간기업 이전 활성화 측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으로 유형화하여 극대화방안을 제시.

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 이정록(2006)은 지역발전 파급효과 측면에서 혁신도시의 건설이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의 유인을 통해 지방세수의 증대효과,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클러스터의 구축, 지역인력의 취업기회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의 질적 제고,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 혁신도시의 관광명소 기능 수행 등 지역발전에 다양한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하지만 이정록(2006)의 연구는 거시적 차원으로 지역발전적 측면에서 혁신도시 건설의 효과 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혁신도시 활성화의 핵심행위자인 이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즉 이전기관의 기능이나 업무, 지역사회연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노출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정록(2006)의 연구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효과를 산·학·연 협력 측면, 인력양성 측면(일자리 창출기회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측면, 이전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측면 등으로 유형화하였음.

1. 산·학·연 협력 측면

- 혁신도시는 지역의 특화 및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도시와 차이가 있음.
- 즉,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혁신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를 구축하여 지역의 혁신역량(innovative capacity)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임.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된 지역산업은 결과적으로 신생기업의 창출, 전문 인력의 유입, 새로운 고용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함.

2. 인력양성 측면 : 일자리 창출기회 확대

-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요 요인은 취업할 대상기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임.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반이전을 하지 않는 인력의 결원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결원인력은 업무성격상 주로 대졸 이상 학력자를 채용하고 있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지방인력의 수요처로, 지역대학과 교육기관은 필요한 전문인력의 공급처 역할을 수행).
 - 대전시에 본사가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3년간(2002년~2004년) 신규채용에 있어서 대전과 충청권 소재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채용인원의 약 12% 정도가 지역출신 대학졸업자로 구성되었음).

3.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전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인구 및 서비스 시설,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이 새롭게 입지함에 따라 인구 유입 및 인구증가의 효과가 예상됨.
- 또한, 혁신도시는 미래형 도시컨셉을 지향하기 때문에 도시자체가 관광 명소로 기능하게 됨. 친환경적 보행로, 특색 있는 건축물과 광장, 쇼핑센터 등은 일반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혁신도시는 단순한 업무·정주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초월하여 생산·고용,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관광이 활성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연결됨.

4.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측면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행정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민간 기업은 업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지방이전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 연구개발(R&D)의 비중과 기술혁신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과 연구소, 이전기관과 상호 협력이 가능한 기업과 연구소, 지역전략산업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음.

5. 이전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측면

- 공공기관은 기관자체의 고유기능이외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지역봉사차원에서 기관의 기능과 연계한 업무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 이전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차원에서 이전기관과 이전지역 주민들의 상호간 신뢰, 상호호혜성,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문화, 복지 분야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이전기관과 지역간 상호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Ⅲ. 공공기관 이전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 정부대전청사

-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의 상권 확대(40.5%), 대전시의 인구증가(15.5%), 대전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11.7%), 대전시의 고용기회 확대(9.8%), 대전시의 부동산 가격상승(9.7%), 대전시의 재정수입 확대(7.0%), 대전시의 교육수준 상승(5.5%) 순으로 나타났음.

□ 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가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2002년 75명, 2003년 96명, 2004년 196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3년간 총 367명의 고용을 창출했음.

〈표 1〉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인재 채용사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3년합계('02-' 04)
총 채용인원(명)	75	96	196	367
대전총청 소계	7(9.3%)	19(19.8%)	18(9.2%)	44(12.0%)
대전소재대학	3(4.0%)	12(12.5%)	12(6.1%)	27(7.3%)
충청권소재대학	4(5.3%)	7(7.3%)	6(3.1%)	17(4.6%)

자료 : 김태환. 2005

- 또한 연간 200억원의 소비지출, 2002년에서 2004년간 274억원의 사무용품 구매, 18.5억원의 지방세 납부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음.

□ 한국거래소

- 금융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출산장려운동, 1사1촌 운동, 지역사회공헌, 복지법인후원, 해외사회공헌, 재단사업 등 간접적 이전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유 형	내 용
출산장려운동	다산다복 가족사랑 그림, 글짓기 대회 Happy KRX, Happy Birthday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으로 생일파티 매달 후원) KRX 산타콘서트 : 저소득층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 어린이 영자신문 구독지원
1사1촌 운동	농촌일손돕기, PC등 마을 필요 물품 지원 농산물 구입,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지역사회공헌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 무료 독감예방 접종 KRX 국민행복 김치나누기,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개설 KRX 한국여자축구 희망프로젝트 사업, 환경정화활동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체결
복지법인후원	KRX 사회공헌주간 봉사활동, KRX 국민사랑 OC 나누기 사업 장애인 차량지원 사업 전개, KRX 사랑의 연탄나누기 신입사원 장애체험 및 봉사활동, KRX EXMUSE 나눔콘서트 개최
해외사회공헌	해외의료봉사활동, 캄보디아 교육지원사업 라오스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국제재난 구호성금기탁
재단사업	금융교육, 인재육성, 사회복지, 저개발국 지원

2. 해외 공공기관

□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

- 1990년 중반 군수조달청은 브리스톨에 이전하였음. 군수조달청의 이전이후 브리스톨 비즈니스 파크에 군수조달청과의 공동입지를 위해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이 집적하였음(Thales Naval, SEA Systems, Lockheed Martin, Thompson CSF Naval Systems 등).
- 다국적 군수업체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개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내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음.

□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 소피아 앙띠폴리스는 니스와 칸에 인접한 알프스산맥의 지맥 사이에 있으며, 면적은 약 121만m²임.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음.
- 1989년 말까지 672개 기업, 11,256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생겨났으며 1999년에 1,164개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20,53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5,000명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활동하였음.
- 1980년대에는 공급기업과 하청기업이 알프스 마리타임(Maritime) 데빠르뜨망(department)내 10%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40%수준으로 전 데빠르뜨망 경제로 확산되어 과학벨트를 구축하였음.

□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 롤리시(市)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더럼시의 듀크대학, 채펠힐시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세 대학을 연결한 삼각지대(트라이앵글)의 중심에 건설된 두뇌 집결지임.
- 1958년 당시의 포지스 주지사가 주 밖으로 두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차 고도 공업화를 향한 초석으로 삼기 위해 발족시켜, 오늘날에는 국립 환경위생연구소와 리서치 트라이앵글연구소 등 관민연구소, IBM과 제너럴 일렉트릭 등 대기업의 연구시설이 있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실리콘 밸리'와 쌍벽을 이루는 연구센터가 형성되었음.
- 당초에는 발전이 미약하였으나, 1965년 IBM이 진출한 뒤 급속하게 확대되어 현재 입주시설 47개소로, 주 최대 도시 샬럿을 크게 웃돌아, 연구단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예가 되었음

-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은 2000년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당시에 106개 기관의 입주, 정규직원 4만5천명과 계약직 5,000명이 종사하였음. RTP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조세수익은 부동산 관련세와 소비세를 합하여 약 2,300만 달러, 기업창업에 의한 고용인구 226개 기업에 약 13,900명, 연구단지 종사자의 연간 구매액 2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정책적 함의

-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이전효과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공공기관이 비록 지역으로 이전할지라도 원래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지역내 기능적 연계효과는 지역산업클러스터(농생명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연계사업 발굴이 필요함(시범단지화 등).
- 이에 따라, 이전효과 중 일부 기관(농·식품관련기관)은 산학연 협력,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소비효과 등)가 크므로 이를 극대화하고, 직접적으로 이전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이전기관의 경우 업무연계 및 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IV.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업진흥청 및 산하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지방행정연수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이전할 예정임.
-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을 기능에 따라 생물생명과학기술, 교육 및 복지, 국토정보신기술의 3가지 군(群)으로 유형화하였음

전라북도에서는 기능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을 3가지 군(群)으로 유형화하였음
 생물생명과학기술 군(群) : 농업진흥청 및 산하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교육 및 복지 군(群) : 국민연금공단,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토정보신기술 군(群) :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1. 생명·생물과학기술 군(群)

가.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임.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기 능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쟁력 제고, 농촌활력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 기초, 기반기술 개발 보급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 과수, 화훼, 인삼 및 약용작물의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
국립식량과학원	식량, 사료 및 녹비 작물의 품종 및 생산 기술개발 보급
국립축산과학원	가축품종 개량, 안전 농축산물의 생산 및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
한국농수산대학	학생교육, 농업인교육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함으로써 발휘되는 주요 기능은 농업생명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농업생명·식품연구 등임. 즉, 농업생명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과정에서 농업관련 이전기관은 전북 혁신도시의 조성 사업과 결합된 첨단 농업연구단지 및 농업생명·생물산업 혁신의 시스템 연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함.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산·학·연 협력(농생명단지 육성, 연구개발 협력),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 효과가 예상된다.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과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음.

이전효과 유형	추진 방안	
<p>산·학·연 협력 (농생명단지조성 및 연구개발 협력)</p>	<p>농생명클러스터 조성</p>	<p>종자종묘산업 육성협력: 국립농업과학원 바이오식품산업 육성협력: 한국식품연구원 농업생명공학산업 육성협력: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기계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협력: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전문문화산업 육성협력 : 이전공공기관의 공동 협력</p>
	<p>업무협력, 공동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p>	<p>안전성 평가 관련 분야 협력 유전자 개발 등 농생명 공학 기초연구 분야 협력 종자 생산 및 품종 개량 연구 협력 재배기술 공동연구 협력 자동화 재배 및 생산기술 연구 협력</p>
<p>인력양성</p>	<p>전문 인력 및 보조인력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인재양성MOU 체결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 연간 35만명의 보조인력(월 2만9500원에서 5만3000원의 노임지급) ● 국립식량과학원 : 722명 채용(행정보조와 전산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 (1인당 월 100만원 정도의 임금 지급) ● 국립축산과학원 : 연간175명 채용(행정보조, 연구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 ● 국립원예특작원 : 연간 900명 채용(박사 후 연구원과 행정보조, 연구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 (월 110만원에서 300만원의 임금 지급) ● 국립농업과학원 : 연간 900명 채용(박사 후 연구원과 행정보조, 연구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 (월 110만원에서 300만원의 임금 지급) ● 한국농수산대학 : 연간 65명 (행정보조, 전산보조와 연구보조, 요리, 환경미화, 작물 재배관리 등) 	

이전효과 유형	추진 방안
지역경제활성화	국내외 국제행사(180회) 개최 관련 공무원 및 관광객(30만명) 유치-지역 내 식당과 모텔 등 상가의 매출 증가에 기여 농생명 체험과학관 및 체험휴양단지 조성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농기계회사, 종묘회사 등 관련회사 이전추진 관련기업 등의 이전추진
지역사회공헌활동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희망나눔 이웃사랑' 무료급식행사 자매결연 참살이 마을일손돕기 및 주민 모임 1사1촌마을 일손돕기, 식목행사 강소농육성사업확산 관련 1사1촌마을현장지원

나. 한국식품연구원

- 현재 정부는 세계의 거대식품시장으로 성장할 동북아시아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중임.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식품 R&D 강화, 관련 인력의 양성, 민간기업의 이전유인 등이 핵심임.
- 한국식품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식품과학기술연구이라는 점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함.
- 이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산·학·연 협력(연구 개발 협력),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지역경제활성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유치,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됨.
- 이에,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한국식품 연구원의 협력방안은 아래와 같음.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협력)	업무협력, 공동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	중·단기 연구과제 수행, 연구장비 공동활용 기술 애로사항 발굴 해결 공동 연구개발 및 공동 관심사항 협의, 기술정보 교류(OJT교육, 세미나 등) Pilot plant 또는 특수 생산설비의 설치, 운영
인력양성	식품일자리창출 프로그램개발(인재양성MOU 체결 필요)	
지역경제활성화	순창·임실·남원의 식품산업과 연계된 식품 발효 클러스터 벨트 조성 무주·진안 등 청정 관광지역과 결합된 식품체험관광 클러스터 벨트 조성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가공무역형 식품단지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지역사회공헌활동	어린이 식품과학교실 개최 어린이 초청 '과학탐방 나들이' 불우이웃돕기 직원걷기대회 성금기탁	

2. 교육 및 복지 군(群)

가.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기능은 연금복지서비스 제공과 기금운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임.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은 조직내부적으로 기능에 따라 연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본사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로 분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관련 인력들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운용본부 및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기관들의 지방이전 유치,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됨.
-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가지 시나리오 대응방안을 제시함.
 -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 전체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 전체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기금운용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토대로 전라북도를 동북아 금융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 것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시 연기금을 투자받은 기업과 금융투자업체 등의 본점과 지점의 전북이전,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전북지점 설치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금운용 본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를 금융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임.
 - **둘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시 기금운용본부 인력(160명)과 국민연금공단 본사인력의 도내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임.**
 - **셋째,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기능을 토대로 복지서비스 분야의 장기적 투자가능사업을 발굴하는 것임.** 즉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북 지역의 특성(고령화 등)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장기적 투자가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LH 경남일괄 이전으로 발생한 잔여부지 98천㎡를 활용)
 - **넷째, 지역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임.** 예를 들어, 군산시 옥도면과 어촌사랑1사1촌 자매결연, 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및 교류, 사회복지 분야인재 장학금, 신사옥에 어린이집, 쉼터 공간 개방 등을 들 수 있음.
-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시 기금운용본부 인력(160명)을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본사인력의 도내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임.**
 - **둘째,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기능을 토대로 복지서비스 분야의 장기적 투자가능사업을 발굴하는 것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북지역의 특성(고령화 등)에 부합하는 투자가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LH 경남일괄 이전으로 발생한 잔여부지 98천㎡를 활용)
 - **셋째, 지역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임.** 예를 들어, 군산시 옥도면과 어촌사랑1사1촌 자매결연, 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및 교류, 사회복지 분야인재 장학금, 신사옥에 어린이집, 쉼터 공간 개방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의 협력방안은 아래와 같음.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제1안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 본사 이전시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운용본부 인원 160명 + 국민연금공단 본사 인력의 유입의 도내 유입 추진 및 정착화
		관련 기관들의 지방이전	연기금을 투자받은 기업, 금융투자업체 등의 본점과 지점 유치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전북지점 설치 추진
		지역사회 공헌활동	복합실버타운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군산시 옥도면과 어촌사랑1사1촌 자매결연 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및 교류 사회복지 분야인재 장학금, 신사옥에 어린이집, 쉼터공간 개방
제2안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본사 이전시	지역경제활성화	국민연금공단 본사 인력의 유입의 도내유입 추진 및 정착화
		지역사회 공헌활동	복합실버타운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군산시 옥도면과 어촌사랑1사1촌 자매결연 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및 교류 사회복지 분야인재 장학금, 신사옥에 어린이집, 쉼터공간 개방

나. 지방행정연수원

- 지방행정연수원의 주요 기능은 지방공무원인재양성임.
- 이에 따라,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학·연 협력,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된다.
- 이에,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지방행정연수원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음.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학연 협력	도 공무원교육원과의 협력
	지방행정연수원 강사모집 DB구축
지역경제활성화	교육생들을 위한 숙박시설 및 관련시설의 정비
지역사회공헌활동	직원과 연수생들이 참여하는 희망나눔뱅크 조성기금 활용방안

3. 국토정보신기술 군(群)

가. 대한지적공사

- 대한지적공사의 주요 기능은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임.
- 이에 따라, 대한지적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를 통한 지역연계 활동,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됨.
- 이에, 대한지적공사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대한지적공사의 협력방안은 아래와 같음.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지역연계사업	무료경감 측량서비스(행복희망나눔 측량)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호지원사업 경계점표지 설치 및 측량성과 배달 서비스 재난지역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지적민원현장처리제', 민원 365일 서비스, 지적민원실운영, 원스톱처리제도입/야간측량민원상담
지역사회공헌활동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지원, 사랑의 헌혈 / 사회복지시설지원 소년소녀 가장/독거노인지원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 일손돕기, 특산품 구매 환경지킴이문화재지킴이, 푸른숲가꾸기, 재해시설 피해복구지원 지적장학사업 / 측량전산장비기증 및 교육지원 새희망장학금 지원, 사이클선수단 운영 /문화예술공연지원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주요 기능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임.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를 통한 지역연계 활동,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됨.
-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력방안은 아래와 같음.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지역연계사업	기술협력 MOU 체결
	'기술개발 인재양성 위한 협약' 체결 고택관광자원화 협약체결 :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읍 김동수 가옥, 남원 윤영채 가옥, 장수 권희문 가옥을 관광자원화.
지역사회공헌활동	도내 다문화가정 무료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및 장학금 지역 농수산물·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간행물 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
- 이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를 통한 지역연계활동,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됨.
- 이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협력방안은 아래와 같음.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지역연계사업	중소출판사 청년인턴 지원사업
지역사회공헌활동	우수도서 선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출판 문화체험 캠프) 45개 교도소에 가정회복 독서프로그램 지원 소외지역 어린이 대상 '책나라 여행' 개최 수험생을 위한 북콘서트 / 지역서점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 여름방학 교사 독서 교육 직무연수 / 독서 아카데미 온라인 독서동아리, 직장 독서동아리, 학교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V. 정책적 제언

1.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정보, 인력, 자본교류를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 전북혁신도시는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타 시, 도 및 해외의 농생명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부지역과의 정보, 인력, 자본 등의 교류가 가능한 지속적 협력을 추진해야 함(산·학·연 협력 활성화).

□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의 개발

- 기업유치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지원기반을 구축.
- 국내외 대규모 앵커기업을 탐색하고 이전의향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구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대상기업의 탐색 및 유치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농·식품 관련 기업의 유치 등).

□ 이전 공공기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교육, 문화, 정주환경 등).

2. 공공기관 이전효과와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광역자치단체내에 혁신도시 성과 공유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

- 혁신도시와 인근 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과 성과공유를 위해 주변지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지역경제활성화 등).

□ 지역인재 우선 채용정책의 명문화 및 맞춤형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채용시, 도내 인재가 채용인원의 최소 5~10% 정도 채용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우선채용 정책을 명문화하고, 이전 기관과 지역사회·대학이 연계한 맞춤형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필요.

□ 지속적인 이벤트 개발로 주민화합 도모

- 혁신도시 건설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축제성 이벤트를 기획·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이전기관의 대표, 임직원, 자치단체장, 시민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발굴하여 지역의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지역사회공헌활동의 체계화).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 3 절 선행연구의 고찰	6
제 2 장 혁신도시내 이전기관의 현황, 이전효과, 지역협력 사례	11
제 1 절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현황	11
1. 전북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별 기능 및 주요 업무	11
2. 전북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별 인원 및 예산 현황	15
제 2 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18
1. 산·학·연 협력 측면	18
2. 인력양성 측면: 일자리 창출기회 확대	20
3.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21
4.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측면	22
5. 이전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측면	23
제 3 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협력 사례	24
1. 농촌진흥청	24
2. 국립농업과학원	24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5
4. 국립식량과학원	25
5. 국립축산과학원	25
6. 한국식품연구원	26
7. 한국농수산대학	26
8. 국민연금공단	26

9. 지방행정연수원	27
10. 한국지적공사	27
11. 한국전기안전공사	27
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구 한국간행물위원회)	28
제 3 장 공공기관 이전사례 분석	31
제 1 절 국내 사례	31
1. 정부대전청사	31
2. 수자원공사	32
3. 한국거래소	33
제 2 절 해외 공공기관	35
1.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	35
2.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35
3.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36
제 3 절 정책적 함의	38
제 4 장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41
제 1 절 생명생물과학기술 군(群)	41
1.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41
2. 한국식품연구원	57
제 2 절 교육 및 복지 군(群)	66
1. 국민연금공단	66
2. 지방행정연수원	71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73
제 3 절 국토정보신기술 군(群)	75
1. 대한지적공사	75
2. 한국전기안전공사	77

제 5 장 정책적 제언	81
제 1 절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반 마련	81
1. 정보, 인력, 자본교류를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81
2.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의 개발	81
3. 이전 공공기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구축	81
제 2 절 공공기관 이전효과의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82
1. 광역자치단체내에 혁신도시 성과 공유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	82
2. 지역인재 우선 채용정책의 명문화 및 맞춤형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82
3. 지속적인 이벤트 개발로 주민화합 도모	82
참고문헌	85
부 록	89

표 목 차

〈표 1-1〉 주요 선행연구의 고찰	7
〈표 1-2〉 전라북도 혁신도시 관련 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	8
〈표 2-1〉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기능 및 현황(인력, 예산)	16
〈표 2-2〉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효과(경제적) 분석	21
〈표 3-1〉 정부대전청사의 지역영향 효과	31
〈표 3-2〉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대전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32
〈표 3-3〉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인재 채용사례	32
〈표 3-4〉 한국거래소 사회공헌활동(KRX CSR)	34
〈표 4-1〉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주요 기능	43
〈표 4-2〉 전북 농업생명클러스터의 단계별 계획	43
〈표 4-3〉 농생명클러스터 세부분야별 신산업기술	47
〈표 4-4〉 전북도내 이전공공기관 관련학과 대학교원 현황	49
〈표 4-5〉 농생명클러스터 구축 관련 연구개발(R&D) 분야(2013년도)	50
〈표 4-6〉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과 전북 도내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현황	51
〈표 4-7〉 농생명 체험과학관 및 체험휴양단지 조성사업(2012~2016년 예정)	54
〈표 4-8〉 농업관련기능군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54
〈표 4-9〉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안)[('09~'15)]	57
〈표 4-10〉 국가식품클러스터 MOU 체결 국내 기업·연구소 현황(2013.1)	62
〈표 4-11〉 국가식품클러스터 MOU 체결 해외 기업·연구소 현황(2013.1)	63
〈표 4-12〉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64
〈표 4-13〉 국민연금공단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69
〈표 4-14〉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73
〈표 4-15〉 출판문화산업진흥원(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74
〈표 4-16〉 대한지적공사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77
〈표 4-17〉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78

그림 목 차

〈그림 1-1〉 전라북도 산업벨트	4
〈그림 2-1〉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입주배치도	17
〈그림 4-1〉 농업관련 이전기관들의 업무연계 모델도 (농촌진흥청, 기관평가보고서, 2011)	45
〈그림 4-2〉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전략	58
〈그림 4-3〉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개요	58
〈그림 4-4〉 국민연금공단의 조직도	67

제1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 3 절 선행연구의 고찰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혁신 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국토공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4.7).
- 전북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FTA에 대응하여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식량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 식품 및 식량안보에 대비하며,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책사업(새만금사업, 국가식품산업단지)을 견인할 수 있음.
- 특히, 농생명 식품 관련기관의 안정적, 지속적인 인력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한 농생명식품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며, 연구효과의 파급과 기업 확산을 통해 전라북도의 타 국책산업벨트(내륙특화산업벨트를 비롯해 새만금신산업벨트, 주력 기간산업벨트, 서해안 녹색에너지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그림 1-1〉 전라북도 산업벨트

- 최근 KTX개통,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지방연구개발역량 확충 등의 여건 변화로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를 매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기회요인들이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하에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완료될 경우, 전북 지역에는 이전기관들을 매개로 산·학·연 협력,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측면의 이전효과가 예상 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토대로 이전효과를 유형화하고, 이를 준거로 이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전기관별로 제시하고자 함.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 이전대 상기관별 인원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이전효과를 유형화하였음.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협력 사례를 분석하였음.
- 둘째, 공공기관 이전사례를 분석하였음. 사례로는 국내 사례의 경우 대전 청사, 수자원공사, 한국거래소를, 외국 사례의 경우 영국의 브리스톨,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사례를 분석하였음.
- 셋째,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효과를 산학연 협력 측면, 인력양성 측면, 민간기업 이전 활성화 측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지역사회공헌 활동 측면으로 유형화하여 기관별로 극대화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언론기사 분석 등을 활용하였음. 즉 국내·외 관련 유사 연구, 이전 공공기관들의 주요 업무계획, 자체평가보고서, 언론에 보도된 기관의 이전계획 및 이전효과, 이전 기관의 장들의 인터뷰 등을 내용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음.

제 3 절 선행연구의 고찰

-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음. 선행연구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 혁신도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정착방안 연구, 혁신도시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연구로 분류하였음.
- 첫째, 혁신도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임. 이러한 연구로는 『전북혁신도시 건설의 파급효과 분석』, 『혁신도시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장기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기관 이전이 대학의 인적자원개발(HRD)에 미치는 영향평가 분석』 등이 존재함.
- 둘째,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관한 연구임. 이러한 연구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정착방안 연구』,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이주 및 정착 의지·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를 사례로』 등이 존재함.
- 셋째,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전략 연구들임. 이러한 연구로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전략』, 『지역산업 분석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전략산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혁신도시 조성의 산업클러스터 구축효과 분석』,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BIT혁신클러스터 구축효과 분석 및 산업특화 변화 예측』 등이 존재함.
- 하지만 기존 혁신도시 연구들은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파급효과 분석, 정주환경 위주임. 일부 연구(경북발전연구원)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이전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표 1-1〉 주요 선행연구의 고찰

연구분야	핵심주제 또는 내용	연구대상	연구자
혁신도시 파급효과 분야	전북혁신도시 건설의 파급효과 분석	전북혁신도시	김종영 (2009)
	혁신도시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장기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 혁신도시	양성혁 (2007)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	충북혁신도시	권정주 (2007)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대구·경북혁신도시	송건섭 (2007)
	공공기관 이전이 대학의 인적자원개발(HRD)에 미치는 영향평가 분석	전북혁신도시	정상현 (2007)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전략	경북 혁신도시	윤철석 (2009)
	지역산업 분석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전략산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 혁신도시	박병목 (2009)
	혁신도시 조성의 산업클러스터 구축효과 분석	충북 혁신도시	권정주 (2009)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BIT혁신클러스터 구축효과 분석 및 산업특화 변화 예측	충북혁신도시	권정주 (2009)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정책 분야	종사자의 이전의사 및 이전형태, 생활환경 만족도 및 거주지 선택 시 중요도, 주거 및 주택부문 현황과 이전 시 희망(고려)사항, 교육부문 현황 및 이전 시 희망(고려)사항, 후생복지부문 이전시 희망(고려)사항	혁신도시 전반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직원들의 이주 및 정착 의지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누를 사례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김준우 (2007)
충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공공기관이전 인식 특성 분석		충북 혁신도시	김병관 (2008)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후생복지 영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혁신도시 전반	김정희 (2010)
혁신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전기관 종사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전반	정승헌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종수 (2008)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혁신도시	정일환 (2009)
혁신도시 이전효과 극대화 분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현황 및 전략 대구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및 전망 기존 대구광역시의 발전전략 검토 및 분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산업발전전략 모색 공공기관이전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체계구상	대구혁신도시	나종규 (2005)

- 전라북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연구는 『혁신도시와 산·학·연·관 연계발전 방안 연구』(2006), 『농업생명·생물산업 혁신클러스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2006),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2008) 등이 존재함. 하지만 이 연구들은 주로 혁신도시 건설의 초창기에 수행된 연구들로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의 관점에서 환경분석, 클러스터 혁신자원들의 실태 및 현황, 기업유치 방안, 클러스터 구축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 반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이전효과를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이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음.

〈표 1-2〉 전라북도 혁신도시 관련 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

연구주제	연구내용
혁신도시와 산·학·연·관 연계발전 방안 연구(2006)	전북혁신도시와 지역발전 파급효과 극대화 방향 혁신도시 건설사례 전북혁신도시 환경 분석 혁신도시 연계 클러스터 구축방향 전북혁신도시의 혁신주체 유치방안
농업생명·생물산업 혁신클러스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2006)	농업생명·생물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망 국내의 농업생명·생물산업 혁신클러스터 사례분석 농업생명·생물산업 혁신클러스터 기반현황 분석 농업생명·생물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추진전략 농업생명·생물산업 혁신클러스터의 기술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200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 방향 해외 식품산업의 실태분석 및 사례연구 국내 식품산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 식품관련 품질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R&D 현황 및 추진전략 산학연 연구개발 및 교육 협력시스템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본 연구(2012)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유형화 -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민간기업 이전활성화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공헌활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협력 사례 분석 공공기관 이전효과 사례분석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제시

제2장

혁신도시내 이전기관의 현황, 이전효과, 지역협력 사례

제 1 절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현황

제 2 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제 3 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협력 사례



제 2 장 혁신도시내 이전기관의 현황, 이전효과, 지역협력 사례

제 1 절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현황

1. 전북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별 기능 및 주요 업무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농업인 위기관리·생활안정, 농촌 활력·동반성장 기술보급, 국격 제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위한 핵심 사업을 총체적으로 수행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FTA 대응품목별 경쟁력제고 농업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개발 친환경기술 확산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업인 위기관리·생활안정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재난성 가축질병 대응 농작물 재해관리체계 상시 가동 농업인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농촌 활력·동반성장 기술보급	강소농 경영체 육성 농촌자원활용 농가소득증대 지원 신기술 보급 확대 농업인력 육성 현장접점 소통 강화	국격 제고 글로벌 기술협력	해외농업기술협력 거점 확대 개도국 농업기술 공여 강화 대외 기술협력 확대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기능식·의약품소재,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작물, 농산물 안전관리, 한식 세계화, 유전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실용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총체적으로 수행

- 농업환경의 조사, 종합관리 및 농촌자원 활용 연구
- 병해충잡초의 종합관리기술 개발 및 유용 산업곤충의 탐색이용 연구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기준설정 및 평가체계 구축
- 첨단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화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 농업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기능성 작물 개발 및 생물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 한식의 현대화, 세계화 기술 개발 및 농식품 자원화 연구
- 농업유전자원 다양성 확보보존·활용 및 국가관리체계 구축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원예특작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원예·특용작물의 품종개량 및 유전육종법 개발·연구
- 원예·특용작물의 안전성·기능성 향상 및 재배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및 생산비절감에 관한 연구
- 원예·특용작물 병해충, 바이러스의 진단·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
- 원예·특용작물의 시비법 개선, 토양 및 양수분 관리 연구
- 원예·특용작물의 시설재배·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연구
-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원예·특용작물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원예·특용작물 분야 기술지원 및 홍보

-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은 농업인의 신기술 활용을 통한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및 미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적으로 식량 안보 확보 및 성장 동력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을 총체적으로 수행

- 작물 유전, 육종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벼/맥류/밭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 연구
- 작물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식량자원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 고령지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연구, 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 바이오에너지작물, 고무마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 작물에 관한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 방안 연구, 현장실증시험, 연구 및 기술이전

-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경쟁력 강화기술 개발,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미래대비 축산기술 개발,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술지원, 성과제고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등을 위한 핵심 사업을 총체적으로 수행

-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 기후변화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 축산물의 안전생산기술 개발
-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수출기술 개발 /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개발
-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축산기술 개발 / 축산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기술 개발
- 축산자원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 신기능성 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 축산관련 연구개발 Agenda 사업지원
-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신소재 개발 / 축산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업·농촌 발전을 주도할 정예 농업 인력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두루 갖춘 미래 농업 CEO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음

- 농업농촌 발전을 주도할 정예 농업 인력양성
- 현장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두루 갖춘 미래 농업 CEO 양성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은 첨단식품과학기술연구가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식품 기능성 규명, 신소재·신공정 연구 개발, 식품저장·유통·안전성 기술 연구개발,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개발, 식품분석, 정보, 표준화 및 기반조성 연구개발, 기술정책 수립의 지원, 기술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 정부, 민간, 법인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연구원의 임무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행 등임.

- 식품 기능성 규명, 신소재·신공정 연구 개발,
- 식품저장유통안전성 기술 연구개발,
-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개발, 식품분석, 정보, 표준화 및 기반조성 연구개발,
- 기술정책 수립의 지원, 기술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양성,
- 기술사업화 등 정부, 민간, 법인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 연구원의 임무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행 등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복지서비스 제공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임.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임.

-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공무원 인재양성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역 최고 리더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지원임.

•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역 최고 리더 역량 강화,
•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지원임.

-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교육사업, 연구사업 등임.

•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교육사업, 연구사업 등임.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안전관리가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 전기안전 미래경영 실천 등임.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 전기안전 미래경영 실천 등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판정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국내간행물심의, 외국간행물심의 등임.

• 국내간행물심의, 외국간행물심의 등임.

2. 전북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별 인원 및 예산 현황

- 농촌진흥청 : 514명(본청 344, 비정규직 170), 예산 9,130억원(일반회계 5,393억원, 소속기관 등 포함)임.
- 국립농업과학원 : 1,420명(본청 508, 비정규직 912), 예산 826억원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1,109명(본원 155, 소속기관 168, 비정규직 786), 예산은 634억원임.
- 국립식량과학원 : 349명(본원 129, 소속기관 220), 예산 355억원임.
- 국립축산과학원 : 643명(본원 140, 소속기관 179, 비정규직 324), 예산 558억원임.
- 한국농수산대학 : 183명(본원 103, 비정규직 80)이며, 예산 200억원임.
- 한국식품연구원 : 374명이며, 예산 471억원(연구직접비 313억원 포함)임.
- 국민연금공단 : 4,519명(본부 609, 하부조직 3,910), 예산 95,944억원임.
- 지방행정연수원 : 101명(2010년 기준 98명), 예산 392억원임.
- 대한지적공사 : 3,606명(본사 139, 연수원 27, 연구원 26, 지사 3,414), 예산 4,548억원임.
- 한국전기안전공사 : 2,734명(본사 293, 전체사업소 2,414), 예산 2,326억원.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45명(2010년 기준 42명)이며, 예산 116억원임.

〈표 2-1〉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기능 및 현황(인력, 예산)

구 분	기 능	인 원		예 산
		정원	이전승인인원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쟁력 제고, 농촌활력	514명 (본청 344, 비정규직 170)	432명	9,130억원(일반회계 5,393억원, 소속기관 등 포함)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 기초, 기반기술 개발 보급	1,420명 (본청 508, 비정규직 912)	1216명	826억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 과수, 화훼, 인삼 및 약용작물의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	1,109명 (본원 155, 소속기관 168, 비정규직 786)	495명	634억원
국립식량과학원	식량, 사료 및 녹비 작물의 품종 및 생산 기술개발 보급	349명 (본원 129, 소속기관 220)	326명	355억원
국립축산과학원	가축품종 개량, 안전 농축산물의 생산 및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	643명 (본원 140, 소속기관 179, 비정규직 324)	326명	558억원
한국농수산대학	학생교육, 농업인교육	183명(본원 103, 비정규직 80)	143명	200억원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과학기술연구	399명(본원 174, 비정규직 225)	505명(2031년 이후)	471억원
국민연금공단	연금복지서비스 제공	4,519명(본부 609, 하부조직 3,910)	573명	95,944억원
지방행정연수원	지방공무원인재양성	101명(2010년 기준 98명)	106명(2031년 이후)	392억원
대한지적공사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	3,606명 (본사 139, 연수원 27, 연구원 26, 지사 3,414)	228명	4,548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안전관리	2,734명(본사 293, 전체사업소 2,414)	296명	2,326억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 유해성여부	45명(2010년 기준 42명)	47명(2031년 이후)	116억원

제 2 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 이정록(2006)은 지역발전 파급효과 측면에서 혁신도시의 건설이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의 유인을 통해 지방세수의 증대효과,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클러스터의 구축, 지역인력의 취업기회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의 질적 제고,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 혁신도시의 관광명소 기능 수행 등 지역발전에 다양한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하지만 이정록(2006)의 연구는 거시적 차원으로 지역발전적 측면에서 혁신도시 건설의 효과 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혁신도시 활성화의 핵심행위자인 이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즉 이전기관의 기능이나 업무, 지역사회연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노출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정록(2006)의 연구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효과를 산·학·연 협력 측면, 인력양성 측면(일자리 창출기회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측면, 이전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측면 등으로 유형화하였음.

1. 산·학·연 협력 측면

- 혁신도시는 지역의 특화 및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도시와 차이가 있음.
- 즉,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혁신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를 구축하여 지역의 혁신역량(innovative capacity)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임.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된 지역산업은 결과적으로 신생기업의 창출, 전문 인력의 유입, 새로운 고용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함.
- 이전시 예상되는 주요 파급 효과로는 전북 소재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과의 유기적 연계로 농산업클러스터 형성 촉진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과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공동연구 및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으로 산업체, 농가에 기술을 전파하고(작물, 한방, 식품, 신약장기, 축산, 농기계, 농가공, 바이오 에너지 등 농업생명 관련 분야),
-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첨단 농업지역으로 변모되어 고부가가치 농산업 신육성거점 형성으로 농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전북내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특화산업의 발전으로 전북전체의 동반 성장을 견인.
 - 익산 한방, 정읍 생물·생명,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 김제 파프리카, 완주 여성한방, 진안 홍삼한방, 장수 한우/사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고창 복분자, 부안 젓갈 등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
- 전라북도의 혁신과 지역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동을 통하여 산·학·연·관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농업 기반이라는 전라북도의 특색을 한층 강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낙후된 교육·문화·생산지원서비스 분야의 동반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라북도는 우수한 인적 자원 유입과 새로운 기업의 유치, 이에 따른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21세기 환황해권 생산과 교류의 거점으로 발전할 것임.
- 전라북도 전역의 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거점 확보를 위해 군산의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농기계 클러스터 벨트 구축과 익산의 한방산업이 연계된 한방의학 클러스터 벨트 조성. 순창·임실·남원의 식품산업과 연계된 식품 발효 클러스터 벨트 조성

- 무주·진안 등 청정 관광지역과 결합된 체험관광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하고 새만금에 조성될 넓은 농지와 결합된 신작물 육종 클러스터벨트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임

2. 인력양성 측면 : 일자리 창출기회 확대

-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요 요인은 취업할 대상기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임.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반이전을 하지 않는 인력의 결원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결원인력은 업무성격상 주로 대졸 이상 학력자를 채용하고 있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지방인력의 수요처로, 지역대학과 교육기관은 필요한 전문인력의 공급처 역할을 수행).
 - 대전시에 본사가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3년간(2002년~2004년) 신규채용에 있어서 대전과 충청권 소재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채용인원의 약 12% 정도가 지역출신 대학졸업자로 구성되었음).
- 특히 전북 이전 공공기관 중 전북도의 핵심 전략산업인 생물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농촌진흥청 및 소속 7개 기관임.이 기관들은 농생명 분야의 상당한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북 이전시 전북 생물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됨.
- 농진청 및 소속기관 이전으로 인한 예상되는 인구유입 5,500여명 수준임. 직접 유인인구는 5,500여명(이전기관 직원 1,779명, 연구보조원 3,000여명, 한국농수산대학 학생 720명). 하지만 직접 유인인구 중 이전기관 직원 일부와 연구보조원 3,000여명중에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연구보조원 등을 대체할 인력충원

가능성이 높음. 직접 채용은 2,000명, 간접채용은 지역주민(일시사역인부)을 포함해 연인원 35만명으로 추정됨.

3.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전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인구 및 서비스 시설,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이 새롭게 입지함에 따라 **인구 유입 및 인구증가의 효과가 예상됨.**
- 유입효과 측면으로서 12개 기관의 현재 근무인원 4,693명(세대포함 12,000명(세대당 2.7명), 건설단계의 파급효과(2011년 ~ 2014년)로서 생산유발효과는 1조 6천억원, 부가가치효과는 8천 4백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6,000명으로 추정됨. 이전 후 운영단계의 파급효과(2014년 이후)로 생산유발 효과는 5천 4백억원, 부가가치 효과는 4천2백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6,500명으로 추정됨.

〈표 2-2〉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효과(경제적) 분석

구 분		효 과
인구유입 효과		기관수 : 12개 기관 인원수 : 현재 근무인원 4,693명 (세대포함 12,000명(세대당 2.7명)) 기업 : 이전의향 기업(21개 기업), 이전검토키업(43개 기업)
파급 효과	건설단계의 파급효과 (2011년 ~ 2014년)	생산유발효과 : 1조 6천억원 부가가치효과 : 8천 4백억원 고용유발효과 : 16,000명
	이전 후 운영단계의 파급효과 (2014년 이후)	생산유발 효과 : 5천4백억원 부가가치 효과 : 4천2백억원 고용유발 효과 : 6,500명
신규 일자리창출		직접 채용 : 2,000명 지역주민(일시사역인부) : 연인원 35만명
지역소비 효과		기관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교육생 도내 소비 : 지방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출처 : 혁신도시 대응과 관련된 전주대 내부연구과제 공모계획서(2012)

- 또한, 혁신도시는 미래형 도시컨셉을 지향하기 때문에 도시자체가 관광명소로 기능하게 됨. 친환경적 보행로, 특색 있는 건축물과 광장, 쇼핑센터 등은 일반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음.
- 전북 혁신도시 이전 시 실험실, 연구실 등 600여동의 연구단지 조성이 기대됨. 플라워파크, 농업체험 박물관, 시험포장, 연구시설, 초지 및 식물원 등임. 이를 통한 연간 방문객수는 30~4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혁신도시는 단순한 업무·정주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초월하여 생산·고용,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관광이 활성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연결됨.

4.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측면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행정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민간기업은 업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지방이전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 연구개발(R&D)의 비중과 기술혁신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과 연구소, 이전기관과 상호 협력이 가능한 기업과 연구소, 지역전략산업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음.
- 다수의 유관 단체 및 관련 기업으로는 학회, 협회 등 113개 단체, y회사 등 농기계회사, 종묘회사 등 138개 관련회사, 민원업체 56개, 협력업체 149개, 관련 언론 29개사 등이 있음.
- 관련기업(이전의향 기업-21개 기업, 이전검토기업-43개 기업) 등의 이전이 예상됨(전주대 연구계획서, 2012).

5. 이전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측면

- 공공기관은 기관자체의 고유기능이외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지역봉사차원에서 기관의 기능과 연계한 업무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 이전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차원에서 이전기관과 이전지역 주민들의 상호간 신뢰, 상호호혜성,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문화, 복지분야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이전기관과 지역간 상호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제 3 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협력 사례

1. 농촌진흥청

업무 협력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국가농업기술 기반역량 강화
	국격제고를 위한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농업경영체 육성 및 경영마케팅 지원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역농업특성화 지원으로 돈 버는 농업 실현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및 농촌 체협활동 활성화로 소득화 기술지원
	농작업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농업개발 기술성과의 효과성 제고
	고객과 현장 맞춤형 홍보 및 민원 서비스 강화
	미안마 농업 관개부장관 기술협력 협의
	농촌진흥청 - 페루 농업연구청 MOU 체결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지역사회 공헌	어린이 농업교실 운영 / 상주시 푸른농촌희망찾기 추진
	김장담그기 체험행사 / 도시민 간장담그기 체험행사
	어려운 이웃- 장수노인 김장 위문 / 불은면 어르신들을 위한 한미당
	예천농촌체험관광 심화과정 체험행사 / 국토말원화 운동
	교육기부 - 어린이 원예체험행사 / 창덕궁 정의정 베풀기 행사
	방과후 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김장배추 모종나누기 행사지원
	녹색체험교실 운영 / 초중등교원 농촌어메니티 체험연수
	전국 농과계대학생 농업기계교육 /어린이날 체험행사

2. 국립농업과학원

업무 협력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농촌 환경관리 기반구축
	친환경 작물보호 및 농업생물자원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농업인프라 구축 및 생산공정 자동화
	농업생명공학 기반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촉진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성 향상
	농식품 안전성 생산관리 기반기술 개발
	농식품 자원의 활용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지역사회 공헌	겨울근초교실 개최-초등학생 대상 / 가을야외곤충생태학교
	풍참기원 제례행사 /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한국 전통주 소믈리에(대장급) 선발대회
	여름방학 녹색농업 체험교실 개최- 초중 고등학생
	꽃매미 월동란 제거 일손 돕기 추진-포도재배 농가
	푸른누리(정와대 어린이 신문) 어린이기자단 곤충체험
	초중등교원 『농촌어메니티 체험 연수』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업무 협력	원예작물 로열티 경감을 위한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
	원예특용작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고급화기술 개발
	인삼특용작물 안전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지역사회 공헌	어린이날기념 무지개꿈 가득한 원예나라 탐험 행사 개최 채소 모종 나눠주기 행사 개최 / 바이오그린 어린이 과학체험행사 유아교육관련자 원예통합교육 - 유아교육현장 원예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유아교육관련자 교사연수 아열대농업과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열대/아열대 채소활용 다문화 음식 경연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원예체험 봄나들이 / 어린이 과학체험 행사 방과후 원예체험교실-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과 연계한 농업농촌사랑 방과 후 학교

4. 국립식량과학원

업무 협력	쌀 수급안정을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FTA 대응 발작물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작물의 기능성 이용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지역사회 공헌	방과후 녹색체험 곡물아트 운영 - 세곡초등학교 학생 대상 초등학생 모내기 체험행사 / 찰옥수수 수확체험 '농진청 하나 되는 모내기 한마당' 권농행사 / 설 떡국 나눔행사 장애인 전문교육기관 '자애학교' 와 자매결연(MOU) 체결 창덕궁 청의정 벼 수확 및 한식체험행사(농과원 전통한식 체험행사 연계)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벼 도정체험) 손모내기 경연대회, 희망 나눔 영산의 집 방문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한 결의대회 도농상생협력을 위한 농촌사랑자매결연 농업농촌사랑 자매결연 협약식 / 숲 가꾸기 행사, 식목행사 어린이 농사체험 '모내기', '추억의 밀서리' 등 / 어린이집 방문 행사 농민교육원 대학생 체험영농교육반

5. 국립축산과학원

업무 협력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기능성 및 안전성 강화기술 개발 가축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 경쟁력 제고 동물 유전자원을 활용한 고능력 종축 생산보급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고부가 동물 신소재개발 김제시와 기술지원협약식 개최 영주시와 기술지원 (MOU(연장)협약식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협약 양해 각서 체결
지역사회 공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 '희망나눔 이웃사랑' 무료급식행사 자매결연 참살이 마을 일손돕기 및 주민과의 모임 1사1촌마을 일손돕기, 식목행사 / 설 명절 희망나눔 이웃사랑 행사 자연치즈 콘테스트 개최 강소농 육성사업 확산을 위한 1사1촌마을 현장지원

6. 한국식품연구원

업무 협력	<p>국민대학교와 MOU 체결, 서산시청과 업무협력(MOU) 약정 체결 한국식품연구원-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연변대간 업무협력협약(MOU)체결 한국식품연구원-영양군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과 업무협력 협약체결 터키 멘켄요리학교와 업무협력 협약체결, 러시아 SSCRF-IBMP와 MOU체결 한국식품연구원-속초시 전통수산물발효식품 명품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의 업무협력 협약체결 청주 서원대-한국식품연구원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MOU체결, 경상북도와 MOU체결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MOU체결, 한-베트남 공동연구로 개발한 리피의 선도연장기술의 베트남 기술이전협약체결</p>
지역사회 공헌	<p>어린이 식품과학교실 개최, 막걸리 프로젝트-16강 대표막걸리 선발전 어린이 초청 '과학탐방 나들이' ,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 개원20주년 기념 불우이웃돕기 직원걷기대회 성금기탁</p>

7. 한국농수산대학

업무 협력	<p>농협은행-한국농수산대학 업무협약 체결 : 예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협약</p>
지역사회 공헌	<p>예산군 4-H본부, 도농교류·도시문화체험</p>

8. 국민연금공단

지역사회 공헌	<p>군산시 옥도면과 어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남부시장과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및 교류 사회복지 분야인재 장학금 / 신사옥에 어린이집 /쉼터공간 개방 등</p>	
	공단 사업과 연계한 고객사랑	<p>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가입자·수급자를 위한 사랑의 의료봉사 장애인을 위한 후원사업</p>
	이웃사랑 실천	<p>독거어르신 행복한 명절나기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1인1나눔 / 한부모, 다문화, 조손세대 가정후원 노인대학 후원, 희망나눔 2010참여</p>
	지역사랑실천	<p>자매결연 마을 교류 활성화 북한산 가꾸기, 아이티 대지진 긴급후원 천안함 사태후원/ 연평도 피해주민 긴급 구호</p>
국민연금 봉사단(지역본부, 센터봉사단) 등 봉사동아리 활동		

9. 지방행정연수원

업무 협력	○ 「통일교육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 협력분야 : 통일안보 프로그램 및 위탁교육, 현장방문 지원
	○ 「경기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 협력분야 : 장기간정교육생의 기초체력 측정 및 시설 지원
	○ 「국사편찬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 협력분야 : 역사아카데미 운영지원, 역사유적 현장방문지 추천
	○ 「수원시(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 - 협력분야 : 소외계층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봉사활동
지역사회 공헌	직원과 연수생이 참여하는 희망나눔뱅크 조성기금 활용방안 자매결연 봉사

10. 한국지적공사

지역사회 공헌	공익사업	무료경감 측량서비스(행복·희망나눔 측량)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호지원사업 경계점표지 설치 및 측량성과도 배달서비스 재난지역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서비스 저개발국 지적제도 무료 컨설팅 및 기술지원 원호대상자 및 장애인 채용
	주민편의	찾아가는 서비스, '지적민원현장처리제' 민원 365일 서비스, 지적민원실운영 원스톱처리제도입 / 야간측량민원상담
	이웃 돌아보기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지원 - 사랑의 헌혈 / 사회복지시설지원 - 소년소녀 가정/독거노인지원
	농어촌사랑	-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 일손돕기, 특산품 구매
	환경보호	- 환경지킴이문화재지킴이, 푸른숲가꾸기 - 재해시설 피해복구지원
	장학사업	- 지적장학사업 / 측량전산장비기증 및 교육지원 - 새희망장학금 지원
	문화·체육진흥	- 사이클선수단 운영 /문화·예술공연지원

11.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 협력	오스트리아 오미크론사와 기술협력 MOU 체결
	원광대와 '기술개발 인재양성 위한 협약' 체결
	(주) 한국중부발전과 감사업무 협력 강화 위한 협약 체결
	인도네시아와 기술협력 MOU 체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감사업무 MOU 체결
	인터컨티넨탈호텔 MOU 체결
	고택관광자원화 협약 체결
	KAIST와 기술협력 MOU 체결
	미국UL(보험업자 시험소)과 기술협력 협정체결 및 인증사업 협력협정 체결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MOU 체결
	교보생명과 고객만족 선도경영을 위한 교류협약 체결
	캐나다 온타리오주 전기안전청(ESA)과 MOU 체결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사회 공헌</p>	<p>도내 다문화가정 무료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지원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및 장학금·지역농수산물·전통시장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 행사 개최 공사 임직원, 태풍 피해지역 주민 위한 사랑나눔 봉사활동 '내고장 사랑운동' 동참 협약 체결 홍보실, '찾아가는 전기안전인형극 공연' 개최 특전체험 캠프 실시 /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개최 / 문화강좌 개최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군장병 위문금 전달 / 해비타트 봉사활동(사랑의 집짓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 고졸사원 채용 할당제 실시 새터민 단체 삼흥학교 봉사활동 실시 / 사랑의 헌혈 활동 전개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활동 / 태풍피해지역 수해복구 활동 전개 서울대 어린이병원 후원회에 성금 전달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 전개 암사재활원 김장하기 봉사활동 및 요리파티 개최</p>
--	--

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구 한국간행물위원회)

<p style="text-align: center;">업무 협력</p>	<p>지역청소년의 독서교육 지도 등 중소출판사 청년인턴 지원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사회 공헌</p>	<p>우수도서 선정 지원 사업 / 중소출판사 청년인턴 지원사업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출판 문화체험 캠프) 45개 교도소에 가정회복 독서프로그램 지원 소외지역 어린이 대상 '책나라 여행' 개최 수험생을 위한 북콘서트 / 지역서점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 여름방학 교사 독서 교육 직무연수 / 독서 아카데미 온라인 독서동아리, 직장 독서동아리, 학교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p>

제3장

공공기관 이전사례 분석

제 1 절 국내 사례

제 2 절 해외 공공기관

제 3 절 정책적 함의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3 장 공공기관 이전사례 분석

제 1 절 국내 사례

1. 정부대전청사

-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의 상권 확대**(40.5%), 대전시의 인구증가(15.5%), 대전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11.7%), 대전시의 고용기회 확대(9.8%), 대전시의 부동산 가격상승(9.7%), 대전시의 재정수입 확대(7.0%), 대전시의 교육수준 상승(5.5%)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 정부대전청사의 지역영향 효과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성장예 따른 지역 상권확대	243	40.5
② 대전시 교육수준의 상승	33	5.5
③ 대전시 인구의 증가	94	15.7
④ 대전시 재정수입의 확대	42	7.0
⑤ 대전시의 고용기회 확대	59	9.8
⑥ 대전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	58	9.7
⑦ 대전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70	11.7
⑧ 기타	1	0.2
계	600	100.0

- 정부청사의 대전이전의 결과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고용, 생산,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인 직접효과 이외에도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생산 등 신규 경제제량의 변동에 따라 파생되는 **여타 산업분야로의 고용유발, 생산유발, 소득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이라고 하는 간접효과를 가져오며, 결국 청사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에 해당됨.

〈표 3-2〉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대전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경제적 효과	
직접효과	직접고용효과(1)	4,246명
	직접생산효과(2)	187,643백만원
	직접소득효과(3)	196,973백만원
	직접부가가치효과(4)	97,537백만원
간접효과	간접고용유발효과(1)(5)	6,984명
	간접생산유발효과(6)	100,859백만원
	간접생산유발효과(7)	265,948백만원
	간접소득유발효과(8)	138,613백만원
	간접부가가치유발효과(9)	190,666백만원
총효과	총고용유발효과(1+5)	11,230명
	총생산유발효과(2+6+7)	554,450백만원
	총소득유발효과(3+8)	335,586백만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4+9)	288,203백만원

2. 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가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2002년 75명, 2003년 96명, 2004년 196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3년간 총 367명의 **고용을 창출했음**.

〈표 3-3〉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인재 채용사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3년합계('02-' 04)
총 채용인원(명)	75	96	196	367
대전총청 소계	7(9.3%)	19(19.8%)	18(9.2%)	44(12.0%)
대전소재대학	3(4.0%)	12(12.5%)	12(6.1%)	27(7.3%)
충청권소재대학	4(5.3%)	7(7.3%)	6(3.1%)	17(4.6%)

자료 : 김태 환. 2005

- 또한 연간 200억원의 소비지출, 2002년에서 2004년간 274억원의 사무용품 구매, 18.5억원의 지방세 납부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음.
- 그리고 1,200세대의 대전거주 직원으로 인해 2002년에서 2004년간 총 227억원의 주택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대전지역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

3. 한국거래소

- 금융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출산장려운동, 1사1촌 운동, 지역사회공헌, 복지법인후원, 해외사회공헌, 재단사업 등 간접적 이전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출산장려운동

- 다산다복 가족사랑 그림, 글짓기 대회, Happy KRX, Happy Birthday
- KRX 산타콘서트 : 저소득층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 어린이 영자신문 구독지원

□ 1사1촌운동

- 농촌일손돕기, PC등 마을 필요 물품 지원, 농산물 구입
-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 지역사회공헌

-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 무료 독감예방 접종
- KRX 국민행복 김치나누기,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개설
- KRX 한국여자축구 희망프로젝트 사업, 환경정화활동
-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체결

□ 복지법인후원

- KRX 사회공헌주간 봉사활동, KRX 국민사랑 OC 나누기 사업
- 장애인 차량지원 사업 전개, KRX 사랑의 연탄나누기
- 신입사원 장애체험 및 봉사활동, KRX ExMUSE 나눔콘서트 개최

□ 재단사업

- 금융교육, 인재육성, 사회복지 등

〈표 3-4〉 한국거래소 사회공헌활동(KRX CSR)

유형	내용
출산장려운동	다산다복 가족사랑 그림, 글짓기 대회 Happy KRX, Happy Birthday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으로 생일파티 매달 후원) KRX 산타콘서트 : 저소득층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 어린이 영자신문 구독지원
1사1촌운동	농촌일손돕기, PC등 마을 필요 물품 지원 농산물 구입,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지역사회공헌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 무료 독감예방 접종 KRX 국민행복 김치나누기,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개설 KRX 한국여자축구 희망프로젝트 사업, 환경정화활동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체결
복지법인후원	KRX 사회공헌주간 봉사활동, KRX 국민사랑 OC 나누기 사업 장애인 차량지원 사업 전개, KRX 사랑의 연탄나누기 신입사원 장애체험 및 봉사활동, KRX ExMUSE 나눔콘서트 개최
해외사회공헌	해외의료봉사활동, 캄보디아 교육지원사업 라오스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국제재난 구호성금기탁
재단사업	금융교육, 인재육성, 사회복지, 저개발국 지원

제 2 절 해외 공공기관

- 김종령(2009)에 의하면, 대체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이 지역별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행정효율성 증대, 경상비 감소 등의 이전목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1.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

- 영국의 경우 리용경의 2004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리즈(Leeds)와 셰필드(Sheffield)를, 2003년 보고서에서는 브리스톨(Bristol)을 손꼽고 있음.
- 브리스톨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필두로 지역 내 경제성장이 가시화되었고 공공기관의 유치와 더불어 공공기관과 연관을 맺은 관련기업이 순차적으로 입지했으며, 마지막으로 이들 기업과 공공기관의 연계구조가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과 함께 지역 내 대학, 관련 기업, 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3중 나선형구조를 형성하였음.
- 1990년 중반 군수조달청은 브리스톨에 이전하였음. 군수조달청의 이전이후 브리스톨 비즈니스 파크에 군수조달청과의 공동입지를 위해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이 집적하였음(Thales Naval, SEA Systems, Lockheed Martin, Thompson CSF Naval Systems 등).
- 다국적 군수업체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개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내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음.

2.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시는 테크노폴리스에서 테크노벨트로 발전한

도시로 개발 20년만에 테크노폴리스의 프랑스 모델(대기업의존형 위성도시), 30년만에 유럽 3대 혁신지역(스스로 발전하는 테크노폴리스)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음.

- 소피아 앙띠폴리스는 니스와 칸에 인접한 알프스산맥의 지맥 사이에 있으며, 면적은 약 121만m²임.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음.
- 1989년 말까지 672개 기업, 11,256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생겨났으며 1999년에 1,164개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20,53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5,000명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활동하였음.
- 1980년대에는 공급기업과 하청기업이 알프스 마리타임(Maritime) 데빠르뜨망(department)내 10%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40%수준으로 전 데빠르뜨망 경제로 확산되어 과학벨트를 구축하였음.

3.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 롤리시(市)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더럼시의 듀크대학, 채펠힐시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세 대학을 연결한 삼각지대(트라이앵글)의 중심에 건설된 두뇌 집결지임.
- 1958년 당시의 포지스 주지사가 주 밖으로 두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차 고도 공업화를 향한 초석으로 삼기 위해 발족시켜, 오늘날에는 국립 환경위생연구소와 리서치 트라이앵글연구소 등 관민연구소, IBM과 제너럴 일렉트릭 등 대기업의 연구시설이 있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실리콘 벨리'와 쌍벽을 이루는 연구센터가 형성되었음.

- 당초에는 발전이 미약하였으나, 1965년 IBM이 진출한 뒤 급속하게 확대되어 현재 입주시설 47개소로, 주 최대 도시 샬럿을 크게 웃돌아, 연구단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예가 되었음.
-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는 2000년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당시에 106개 기관의 입주, 정규직원 4만5천명과 계약직 5,000명이 종사하였음. RTP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조세수익은 부동산 관련세와 소비세를 합하여 약 2,300만 달러, 기업창업에 의한 고용인구 226개 기업에 약 13,900명, 연구단지 종사자의 연간 구매액 2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입주기업의 절반이상이 다국적 기업일 만큼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컴퓨터를 비롯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의약, 화학분야 등 광범위한 첨단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40,000명이 넘는 종업원의 99.4%가 연구개발(R&D) 분야의 기업과 관련 단체에 종사하고 있으나 약 40%의 기업과 단체들이 10인 이하의 소규모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연봉수준도 56,000달러 소득수준임.

제 3 절 정책적 함의

-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이전효과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공공기관이 비록 지역으로 이전할지라도 원래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지역내 기능적 연계효과는 지역산업클러스터(농생명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연계사업 발굴이 필요함(시범단지화 등).
- 이에 따라, 이전효과 중 일부 기관(농·식품관련기관)은 산학연 협력,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소비효과 등)가 크므로 이를 극대화하고, 직접적으로 이전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이전기관의 경우 업무연계 및 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제4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 제 1 절 농업관련기관
- 제 2 절 한국식품연구원
- 제 3 절 국민연금공단
- 제 4 절 지방행정연수원
- 제 5 절 대한지적공사
- 제 6 절 한국전기안전공사
- 제 7 절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 4 장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전라북도는 기능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을 3가지 군(群)으로 유형화하였음
생물생명과학기술 군(群) : 농업진흥청 및 산하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교육 및 복지 군(群) : 국민연금공단, 지방행정연수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국토정보신기술 군(群) :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제 1 절 생명생물과학기술 군(群)

1.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가. 기본방향

-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들이 이전할 예정임.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임.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은 농촌·농업과 관련해 시험·연구, 지도·양성, 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고용창출과 농업분야 R&D시스템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업발전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됨.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음.
 - 농촌진흥청은 농산업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농업인 위기관리·생활안정, 농촌 활력·동반성장 기술보급, 글로벌 기술협력 등임. 이전승인인원은 432명이며, 예산은 9,130억원(일반회계 5,393억원, 소속기관 등 포함)임. 이전 시기는 2014년 7월 예정임.
 -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과학 기초, 기반기술 개발 보급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농업환경의 조사, 종합관리 및 농촌자원 활용 연구, 병해

충·잡초의 종합관리기술 개발 및 유용 산업곤충의 탐색·이용 연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기준설정 및 평가체계 구축, 첨단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화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농업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기능성 작물 개발 및 생물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등임. 이전승인인원은 1,216명(본청, 비정규직)이며, 예산은 826억원임. 이전시기는 2014년 7월 예정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및 약용작물의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원예·특용작물의 품종개량 및 유전육종법 개발·연구, 원예·특용작물의 안전성·기능성 향상 및 재배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및 생산 비절감에 관한 연구, 원예·특용작물 병해충, 바이러스의 진단·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 등임. 이전대상 인원은 1,109명(본원 155, 소속기관 168, 비정규직 786)이며, 예산은 634억원임. 이전시기는 2015년 2월 예정임.
- 국립식량과학원은 식량, 사료 및 녹비 작물의 품종 및 생산 기술개발 보급이 핵심기능이고, 작물 유전, 육종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벼/맥류/밭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 연구, 작물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식량자원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고령지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연구, 바이오에너지작물, 고구마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작물에 관한 생명공학 기술의 실용화 방안 연구 등임. 이전승인인원은 326명(본원, 소속기관)이며, 예산은 355억원임. 이전시기는 2015년 2월 예정임.
-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품종 개량, 안전 농축산물의 생산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보급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동물생명공학 이용 바이오신소재 개발,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기후변화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 축산물의 안전생산기술 개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수출기술 개발,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개발,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축산기술 개발, 축산자원 이용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임. 이전승인인원은 326명(본원, 소속기관, 비정규직)이며, 예산은 558억원임. 이전시기는 2015년 2월 예정임.

- 한국농수산대학은 학생교육, 농업인교육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현장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두루 갖춘 미래 농업 CEO 양성 등임. 이전승인인원은 143명(본원, 비정규직)이며, 예산은 200억원임. 이전시기는 2014년 2월 예정임.

〈표 4-1〉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주요 기능

구 분	기 능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쟁력 제고, 농촌활력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 기초, 기반기술 개발 보급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 과수, 화훼, 인삼 및 약용작물의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
국립식량과학원	식량, 사료 및 녹비 작물의 품종 및 생산 기술개발 보급
국립축산과학원	가축품종 개량, 안전 농축산물의 생산 및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
한국농수산대학	학생교육, 농업인교육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함으로써 발휘되는 주요 기능은 농업생명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농업생명·식품연구 등임. 즉, 농업생명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과정에서 농업관련 이전기관은 전북 혁신도시의 조성 사업과 결합된 첨단 농업연구단지 및 농업생명·생물산업 혁신의 시스템 연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함.

〈표 4-2〉 전북 농업생명클러스터의 단계별 계획

구분	추진 목적	주요내용
기반조성및 구축단계 (~2020년)	Green Valley 조성	농촌진흥청 이전(R&D 인력 pool의 D/B화) 연구지원시설(실험실·시험포, 컨벤션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민간연구소 유치 농과대학 대학원 그린밸리 캠퍼스 유치 농업생명·생물산업 관련 농기업체 유치
	클러스터링 강화	품목별·지역별 클러스터의 네트워킹 & 산학관연 인적·물적 자원의 산업현장에 대한 알선·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발전단계 (2021~25)	고부가가치 농업생명산업 육성	상품화 기술개발·보급, 마케팅 프로그램 추진 식품가공산업·전문문화산업의 발굴 및 지원 벤처창업을 통한 농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마케팅 강화
완성단계 (2026~)	동북아대표 혁신클러스터 구축	학습프로그램의 추진으로 클러스터 주체의 혁신역량 제고 전국이 농업생명 관련 혁신도시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혁신 시너지 제고 농산업의 생명산업과 연계를 통한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 해외 수출역량의 강화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생물산업혁신클러스터 발전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2006.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 사업기간 : 2009년~2015년(7년)

□ 사업내용

- 이전지역 : 전북 전주시(중동-만성동) 및 완주군(이서면) 일원
- 조성면적 : 6.3km²(191만평)
- 이전인력 : 농촌진흥청 본청 및 4개 소속기관 1,684명
 - ※ 4개 소속기관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 사 업 비

- 총 사업비 : 1조 6,831억원
 - 토지매입비 : 8,403억원
 - 청사신축비 : 8,428억원(공사 7,972, 설계 223, 감리 219, 부대비 14)

* 관련예산 : ('12) 1,162 → ('13) 2,800억원(1,638억원, 141.0% 증)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당 초	267	2,482	3,542	4,524	7,078	-
변 경	169	2,482	3,542	1,162	2,800	6,676
증 감	△98	-	-	△3,362	△4,278	6,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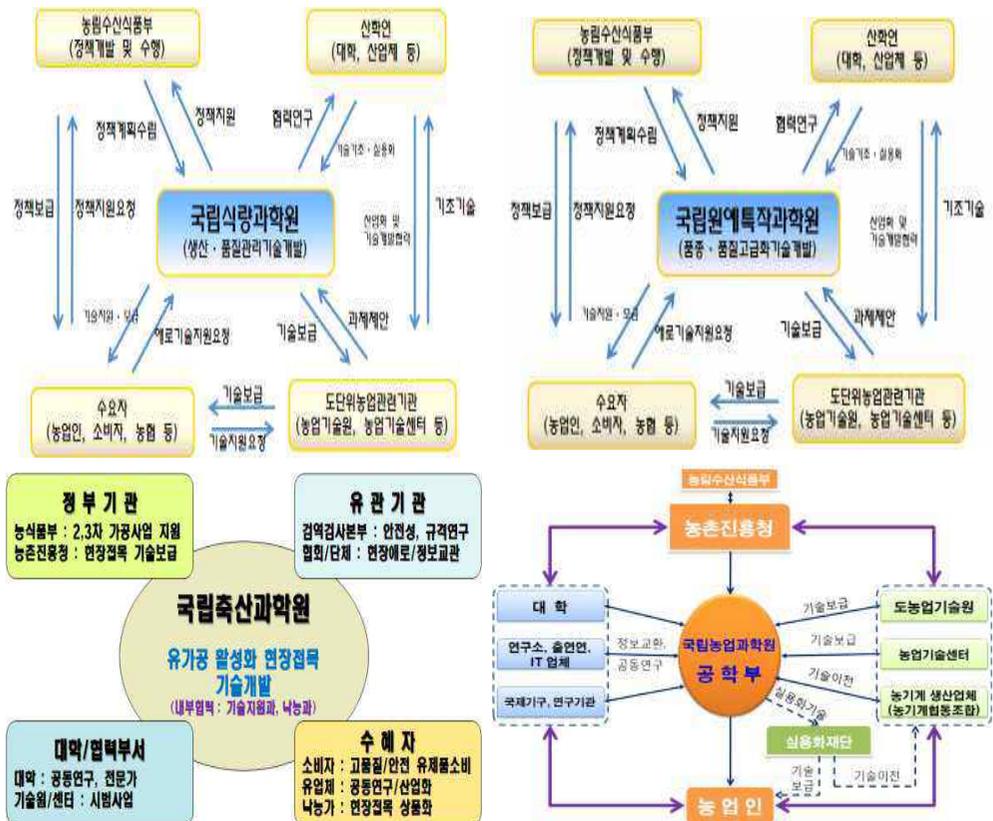
출처: 농촌진흥청 2013년도 예산개요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산·학·연 협력(농생명단지 육성, 연구개발 협력),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지역경제활성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될.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음.

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1) 산·학·연 협력 측면

- 농림수산식품부 : 정책개발 및 정책집행
-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기관 : 정책지원, 기술교류지원, 협력연구 등
- 대학 : 이전공공기관과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지식 및 기술 교류 등
- 지방자치단체 : 이전공공기관과 지식 및 기술교류, 현장인력양성 협력



〈그림 4-1〉 농업관련 이전기관들의 업무연계 모델도(농촌진흥청, 기관평가보고서, 2011)

□ 연구개발 협력

○ 농업생명관련 이전기관 6개중 5개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고, 한국식품연구-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동반 이전함에 따라 이들 기관에는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협력분야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협력유형

- **업무협력** : 대부분 농업 및 농생명 관련 자원조사 기능, 연구기능, 품종 개량, 재배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므로 농업용수, 야외포장, 재배단지 등 일반 업무에서 협력 가능
- **공동연구개발** : 농업, 축산, 원예, 농생명 등의 품종개량, 생명공학기술의 각 분야별 접목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
-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재배단지의 공동활용, 야외포장시설 공동 활용 등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 협력가능 분야

- 안전성 평가 관련 분야 :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산물 안전성을 연구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연구를 수행하므로 안전성 평가 관련 공동연구 가능과 더불어 나아가 표준화도 공동으로 추진토록 유도
- 유전자 개발 등 농생명공학 기초연구 분야 : 국립농업과학원 산하 농업생명자원부를 주축으로 관련 기관에서 농생명공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수행 가능
- 종자 생산 및 품종 개량 연구 : 종자를 생산하는 원예연구소, 가축의 품종을 개량하는 국립축산과학원, 토양자원을 연구하는 국립농업과학원, 발작물 등의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을 연구하는 국립식량과학원 등이 공동연구추진 가능
- 재배기술 공동연구 : 농업의 경우 품종과 종자의 개발과 함께, 이를 재배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원예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 등이 공동으로 재배기술 등을 연구
- 자동화 재배 및 생산기술 연구 :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농업공학부, 한국농업대학, 원예연구
 구소, 국립식량과학원 등이 공동으로 자동화 생산기술 연구 등

○ 농생명클러스터의 특화분야를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5가지
 분야로 압축가능

- 종자·종묘산업 :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산하 농업생명자원부 포함)이 주도
- 바이오식품산업 : 한국식품연구원 주도
- 농업생명공학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원예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 가축연구소 등
- 농기계메카트로닉스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한국농업대학 등 참여
- 농촌전통문화산업 : 이전공공기관의 공동 협력

〈표 4-3〉 농생명클러스터 세부분야별 신산업기술

분야	대표기술	중점 연구 분야
종자종묘 (GT)	종묘육종기술, 곤충사육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안전식량 생산을 위한 신품종 개발 ◦ 신기능성 작물개발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창출 ◦ 국제적 기호성 고품질 신품종 육성 ◦ 신기능성 원예작물 개발 ◦ 고부가가치 종합 생물산업화 ◦ 곤충자원의 신기능성 물질 탐색·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에, 화분매개 곤충 등 ◦ 사료작물 품종육성 및 생산·이용체계
농기계공학 (MT)	비파괴분석기술,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고부가가치화·품질차별화 기계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 후 관리 기계화 기술 - 품질 및 안전성 비파괴 판정기술 ◦ 생력화 및 자동화 기술 개발 ◦ 농업시설 환경 최적화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 및 축사 구조 - 자연·대체에너지 ◦ 농업기계 시험평가 수준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ISO 등 국제규범 적용
발효식품	전통발효식품, 기능성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품 가공기술의 향상 및 표준화 ◦ 질병 억제 등 기능성 식품 ◦ 전통 발효식품 관련 기술의 향상 등

분야	대표기술	중점 연구 분야
전통문화 (CT)	전통테마마을, 농촌어메니티 보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테마 마을 및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 ◦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인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어메니티 및 농산자원 활용 - 농촌 인적자원 개발 등
농업생명공학 (NT)	바이오 장기 및 신약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원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 ◦ 게놈 분석연구를 통한 분자육종기반 확보 ◦ 생물자원정보 종합 DB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생물대사 공학 연구에 의한 신기능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 평가체계 확립 ◦ 동물생명공학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기반기술	친환경기술(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종합실천기반 개발 및 현장정착 ◦ 농경지 내 유해물질 종합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적 방제법 활용 - 농자재 적정 사용기술 및 평가관리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사육환경 개선

○ 출처 : 농업생명 생물산업 혁신 클러스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단국대, 2006)

□ 도내 대학 등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

- 이전공공기관과 대학 간 산학협력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연구 개발 등을 추진
- 농업관련 4개 기관(국립농업과학원(농업생명자원부), 원예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대학)은 농업계열학과, 생명공학학과, 생물학과 등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는 농기계 및 기계관련 학과와,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학과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영양학과와 관련성이 높음
- 전북도내의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학과의 대학교원수는 총 245명임.
 - 농업관련 4개 기관(국립농업과학원(농업생명자원부), 원예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대학)과 관련된 대학의 연구인력 수는 193명
 - 한국 식품연구원 관련 대학의 연구인력 수는 282명 수준

〈표 4-4〉 전북도내 이전공공기관 관련학과 대학교원 현황

지역	대학교명	농업관련 5개 기관	농업공학부	국립축산 과학원	한국식품 연구원	합계
전주	전북대학교	77	38	7	-	122
익산	원광대학교	8	8	-	8	24
남원	서남대학교	11	-	-	-	11
완주	우석대학교	5	-	4	4	13
	한일장신대학교	2				2
전주	전주공업대	-	13	-	-	13
	전주기전여대	-	-	-	11	11
익산	원광보건대	-	-	-	4	4
	전북대	22	9	4	6	41
	원광디지털대				4	4
합 계		193	83	52	282	245

자료 : 전라북도, 혁신도시와 산학연관 연계발전방안 연구, 2006.

○ 이전공공기관의 연구인력 수는 약 1,000명(농진청 소속 기관 연구 인력 843명, 한국 식품연구원 이전대상 인원 147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전공공기관과 전북도내 연구 인력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추진 가능

○ 연구개발 가능 분야 : 농생명공학, 농업, 농기계, 축산, 식품관련 연구 등

- 농생명공학 기초연구 : 국립농업과학원 내 농업생명자원부를 중심으로 도내 대학, 다른 이전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농생명공학 분야 기초연구를 수행
- 농업관련 실용화연구 : 종자생산 및 품종개량, 작물재배기술
 - * 종자생산 및 품종개량 연구 : 원예연구소,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이 주축이 되어 종자생산, 품종개량 등 연구
 - * 재배기술 공동연구 : 국립농업과학원(농업생명자원부), 원예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 등 주축이 되어 농작물의 재배기술 등 연구
- 자동화 재배, 생산을 위한 농기계 관련 연구 : 농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를 위해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공학부), 한국농업대학, 원예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 등이 주축이 되어 자동화 생산기술 연구 추진

- 축산관련 연구 : 가축유전체 형질 변경, 가축 품종 개량, 사료개발 등
- 식품관련 연구 : 전통식품의 대량생산기술, 가공식품 표준화, 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공동연구

〈표 4-5〉 농생명클러스터 구축 관련 연구개발(R&D) 분야(2013년도)

분야	대표기술	연구개발(R&D)	연구개발비
종자·종모(GT)	중요·육종기술, 곤충사육기술	〈농업생물연구〉 양봉·양잠산물의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새로운 유용곤충 탐색 및 이용기술 개발, 농업미생물 자원관리 및 이용 등 25과제	6,513백만원
		〈농업 곤충자원 이용 기술개발 사업〉 곤충산업법 제정에 따른 유통·판매 등급구분 등 연구개발 6개 과제	1,500백만원
		〈신품종개발공동연구〉 작물의 우수 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성 연구 17개 과제	6,350백만원
농기계공학(MT)	비파괴분석기술,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	〈농업공학 연구〉 시설현대화 기술개발, 농작업 자동화·로봇화 기술개발, 농업에너지 절감 및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개발, 농축산물의 수확 후 처리기술개발 등 38과제	7,409백만원
		〈농업에너지절감기술개발〉 시설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및 간척지 에너지 절감형 경량온실 모델개발 기초기반 연구	3,500백만원
발효식품	전통발효식품, 기능성식품	〈농식품자원 연구〉 농식품 실용가공기술 개발, 발효식품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정성 확보, 신기능성 농식품 발굴 및 실용화 기술개발 등 29과제	5,981백만원
전통문화(CT)	전통테마마을, 농촌어메니티 보존 및 활용	개발기술 종합화 및 현장접목연구를 통한 농가 수익모델 창출 : 45개 모델 - 강소농 수익모델 현장접목연구	117억원
농업생명공학(NT)	바이오 장기 및 신약개발	〈농업생명자원 연구〉 농생명 유전체 연구 및 고유 유전자 발굴 및 미래형 GM작물 육종소재 개발, GM작물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성평가체계 구축 등 30과제	7,388백만원
		〈농업유전자원 연구〉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분류·보존·증식·특성평가·분양 및 종합정보화기술개발 등 13과제	7,016백만원
기반기술	친환경기술(ET)	〈농업환경연구〉 토양 및 양분 종합관리기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생태 영향평가, 유기농업 기술, 농촌의 경관·전통지식 발굴 및 소득화 기술 등 45과제	9,630백만원
		〈농산물안전성 연구〉 유해물질 위해성 분석체계 구축, 농식품 유해생물 위생관리 기술 개발, 선진국 수준의 농자재 평가기준 확립, 병해충·잡초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 36과제	6,576백만원
		〈바이오메스용 거대역새 현장실증〉 바이오메스용 역새단지 조성 및 거대역새활용기술 개발 10개 과제	3,000백만원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실증연구 및 자연순환 농업〉 에너지자립형 녹색마을 실증 및 가축분뇨자원화·퇴비화 연구 17개 과제	4,000백만원

□ 도내 기술혁신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의 시설 및 장비 공동 이용

-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재배단지, 포장시설 등을 도내 대학 등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등의 체결을 추진.
- 전라북도 내 기술혁신기관들이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이전공공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여 연구개발, 기업지원, 시험생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

〈표 4-6〉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과 전북 도내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현황

이전기관	대상기관	협약체결명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전북대	학연협동연구석박사 학위과정설치에 관한 협약체결	전북대학교의 대학원내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운영 및 상호협력
		바이오그린21사업세 부과협약	돼지홍막 폐렴방어를 위한 형질전환체 개발
		바이오그린21사업세 부과협약	생산조건 불리지 적응 다수성 관련 분자 생물학적연구
	우석대	바이오그린21사업세 부과협약	지향으로부터 제조제 저항성 유전자 개발 및 실용화 연구
		바이오그린21사업주 관과제협약	GABA 및 유용 아미노산 고생산 치즈 starter 균주의 선발 및 산업화적 활용기술 개발
	원광대	바이오그린21사업세 부과협약	국내산 자생식물로부터 항암, 항고혈압신소재 탐색 연구
		바이오그린21사업세 부과협약	유용유전자 개발에 필요한 유전자원 선발 및 특성평가
	서남대	바이오그린21사업세 부과협약	제조제 저항성 벼의 잡초화 및 도입 유전자 이동성 연구
	고창군	바이오그린21사업세 부과협약	유효성분의 고효율 생산 및 생합성 대사연구
	군산대	바이오그린21사업세 부과협약	나무딸기(복분자) 선발, 수종육성
국립농업과학원	부안군	산.학협력체결	활성물질의 독성시험
국립농업과학원	장수군	업무협약	양잠산업 기술개발 및 양잠산물 기술연구, 부안군 누에타운 조성사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순창군	업무협약	농산물 생산 및 품질관리 기계기술 개발과 현장실용화 촉진
국립식량과학원	전북대	학.연협약체결	고추장 전용 고추 품종개발, 청결고춧가루 생산 및 최적화 기술개발 장류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협조체계 구축
			전문인력 상호현장 참여,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 공동활용, 학생현장실습 참여, 교육과정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교환 등

출처 : 김종령(2009)

2) 인력양성 분야 : 전문 인력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협력

□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 도내 대학, 연구소, 기술혁신기관들이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 가능
 - 대학과 공공기관은 석·박사 학위과정이나 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 가능
 - 대학생 등의 현장실습 등을 이전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

□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의 개발(농업관련 기관들의 연구 및 보조인력 양성)

- 농촌진흥청 : 연간 35만명의 보조인력 필요. 농촌진흥청과 4개 산하기관의 시험포에서 근무
- 국립식량과학원 : 행정보조와 전산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의 분야에서 722명 채용
- 국립축산과학원 : 행정보조와 전산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의 분야에서 722명 채용
- 국립원예특작원 : 박사 후 연구원과 행정보조, 연구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 연간 900명 채용
- 국립농업과학원 : 박사 후 연구원과 행정보조, 연구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 연간 900명 채용
- 한국농수산대학 : 연간 65명 정도의 고용수요 발생(행정보조 40명을 비롯해 전산보조와 연구보조, 요리, 환경미화, 작물재배 관리 등 10여명)
- 농업관련기관들과 도내 대학 간 농업분야의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술협력(인재양성MOU 등)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

3) 민간기업 이전활성화 측면

- 농업관련 기관들과 연계된 농업관련 민간기업의 이전활성화 추진
- 이전기관들의 집적을 매개로 유관 기업을 집적시키고, 기업집적이 관련 산학연의 입주를 촉진시키는 누적적인 선순환 효과 창출
 - 이전공공기관의 유치를 계기로 지역 내 농생명분야의 기업육성
 - 기존 기업의 농생명 관련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이전공공기관을 혁신자원으로 활용하여 외부기업을 적극 유치

4)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 **지역관광 활성화** : 혁신도시의 랜드마크화, 이를 통해 혁신도시로의 관광객 및 인구 유입 촉진
 - 국내외 국제행사(180회), 관련 공무원 및 관광객(30만명)
- **농생명 관련 체험과학관 건립 및 운영**
 - 농립어업 전시관 설치,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춘
- **농생명 체험휴양단지 조성 및 활용**
 - 단기적 : 이전대상기관 직원 및 가족,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 재배단지 조성(도시형 식물공장 등)
 - 장기적 :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내로의 인구유입 촉진
 - 농작물 재배단지에는 혁신도시 입주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어 혁신도시 내 조기 정착을 유도함

〈표 4-7〉 농생명 체험과학관 및 체험휴양단지 조성사업(2012~2016년 예정)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총사업비	1450	150	150	140	140	720
국비	60	60	60	60	60	300
지방비	20	30	30	20	20	120
민자	60	60	60	60	60	300

5)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 : 프로그램 개발

-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 '희망 나눔 이웃사랑' 무료급식행사
- 자매결연 참살이 마을 일손 돕기 및 주민과의 모임
- 1사1촌마을 일손 돕기, 식목행사
- 강소농 육성사업 확산을 위한 1사1촌마을 현장지원

〈표 4-8〉 농업관련기능군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이전효과 유형	추진 방안	
산·학·연 협력 (농생명단지조성 및 연구개발 협력)	농생명클러스터 조성	종자·종묘산업 육성협력: 국립농업과학원 바이오식품산업 육성협력: 한국식품연구원 농업생명공학산업 육성협력: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기계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협력: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전문화산업 육성협력: 이전공공기관의 공동 협력
	업무협력, 공동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	안전성 평가 관련 분야 협력 유전자 개발 등 농생명 공학 기초연구 분야 협력 종자 생산 및 품종 개량 연구 협력 재배기술 공동연구 협력 자동화 재배 및 생산기술 연구 협력
인력양성	전문 인력 및 보조인력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인재양성MOU 체결 필요) • 농촌진흥청 : 연간 35만명의 보조인력(월 2만9500원에서 5만3000원의 노임지급) • 국립식량과학원 : 722명 채용(행정보조와 전산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 (1인당 월 100만원 정도의 임금 지급)	

이전효과 유형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축산과학원 : 연간175명 채용(행정보조, 연구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 • 국립원예특작원 : 연간 900명 채용(박사 후 연구원과 행정보조, 연구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 (월 110만원에서 300만원의 임금 지급) • 국립농업과학원 : 연간 900명 채용(박사 후 연구원과 행정보조, 연구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 (월 110만원에서 300만원의 임금 지급) • 한국농수산대학 : 연간 65명 (행정보조, 전산보조와 연구보조, 요리, 환경미화, 작물 재배관리 등)
지역경제활성화	<p>국내외 국제행사(180회) 개최 관련 공무원 및 관광객(30만명) 유치-지역 내 식당과 모텔 등 상가의 매출 증가에 기여 농생명 체험과학관 및 체험휴양단지 조성</p>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p>농기계회사, 중묘회사 등 관련회사 이전추진 관련기업 등의 이전추진</p>
지역사회공헌활동	<p>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희망나눔 이웃사랑’ 무료급식행사 자매결연 참살이 마을일손돕기 및 주민 모임 1사1촌마을 일손돕기, 식목행사 강소농육성사업확산 관련 1사1촌마을현장지원</p>

(제안사업) 농식품거래센터(AgroTrade : AT센터) 설립(안)

□ 필요성

- 전북의 농업생명산업의 육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전북 농산물 및 가공상품의 우수성 및 이미지를 국내외에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전북이 농업생명산업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형성·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 전북 농산물 및 가공상품 판매 촉진.
- 농업생명산업의 메카로서의 전북의 이미지 형성 및 확산.

□ 추진내용

- 혁신도시 내에 대규모 농산물 및 가공상품 종합유통지원센터 설립.
- 전시·컨벤션센터, 상설전시·홍보관, 유통업체 사무 공간, 호텔, 병원, 휘트니스, 상가, 식당가 등 편의시설 구비.
- 농산물 및 가공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전북 상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기획·추진.
- 국내외 유통업체 상담 및 거래알선.
- 혁신도시 내 그린네트워크를 연계·활용 등 특성화된 친환경농업생명 관련 행사 기획·추진.

□ 기대효과

- 전북의 농산물 및 가공기업의 성장 및 유치 활성화
- 전북혁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함으로써 농업생명의 메카로서의 혁신도시 및 전북의 이미지 형성 및 제고
-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혁신도시 주민의 편익을 제고

출처 : 혁신도시와 산·학·연·관 연계 발전방안 연구(2006)

2. 한국식품연구원

가. 기본방향

- 현재 정부는 세계의 거대식품시장으로 성장할 동북아시아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중임.
 - 15억 인구의 동북아 시장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동북아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식품시장으로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전망)
 - FTA 등으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 해외 식품시장 진출 확대 기회(80개국과 FTA발효 및 발효 예정)

〈표 4-9〉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안)[('09~'15)]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10,068.4	140.0	2,975.9	2,076.6	2,405.3	1,379.8	635.5	455.4
국 비	3,445.8	20.0	368.6	417.3	667.3	1,095.5	516.7	360.3
지방비	1,018.3	20.0	62.7	231.8	316.5	243.6	78.1	65.6
민 자	5,604.2	100.0	2,544.6	1,427.5	1,421.5	40.6	40.6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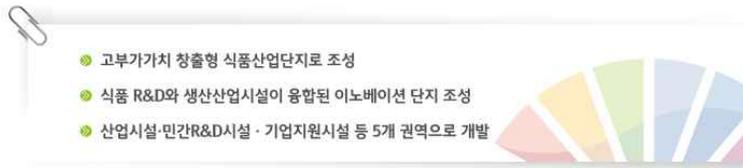
출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2008)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식품 R&D 강화, 관련 인력의 양성, 민간기업의 이전유인 등이 핵심임.
- 한국식품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식품과학기술연구이라는 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함.
 - 한국식품연구원은 첨단식품과학기술연구가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식품 기능성 규명, 신소재·신공정 연구 개발, 식품저장·유통·안전성 기술 연구개발,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개발, 식품분석, 정보, 표준화 및 기반 조성 연구개발, 기술정책 수립의 지원, 기술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 정부, 민간, 법인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연구원의 임무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행 등임. 이전승인인원은 505명이며, 예산은 471억원(연구직접비 313억원 포함)임. 이전시기는 2015년 6월 예정임.

-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이 완성될 수 있음. 즉 그동안 전통방식을 고수해온 도내 식품분야가 첨단방식으로 변화되고, 익산지역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네덜란드 푸드밸리 (food valley)와 같은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hub)로 만들 수 있음.



〈그림 4-2〉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전략



〈그림 4-3〉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개요

-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협력),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지역경제활성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된다.
- 이에,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한국식품연구원의 협력방안은 아래와 같음.

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1) 산·학·연 협력 측면

- 중·단기 연구 과제 수행, 연구 장비 공동 활용
- 기술 애로사항 발굴 해결
- 공동 연구개발 및 공동 관심사항 협의, 기술정보 교류
- Pilot plant 또는 특수 생산설비의 설치, 운영

협력 약정체결 현황 (산·연·관)

제주도, 중앙개발(주), 앤드로메딕스(주), 서울삼성병원, 광동제약(주), 원자력병원, (주)동원F&B, 한국해양연구원, 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송도테크노파크, (주)엠디바이오알파, 순창군, 발효산업벨트조성협의회, 국립수산과학원, 웅진식품(주), (주)아워홈, 특허청, 임실군/ 임실치즈농협/전북대, 삼성테크스코(주), 보성군, 전주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고창군, 익산시, 증평군, [경북전략기획사업단/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완주군, 영천시, 경상북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 음성군 인삼클러스터, 횡성군, 경기도, 대장금프로젝트수행 MOU, 남원허브산업혁신특화사업 MOU, 농림수산정보센터, 전라남도, (주)제네시스그룹,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업진흥연구본부-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서산시, 서산생강클러스터사업단(주), [중부·서남권 5개 테크노파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상대학교, 강릉시, 영양군, 국민대학교, 속초시청,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한국고전번역원, 우석대학교, 성남중앙시장상인회,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우리자연홀딩스

2) 인력양성 측면

- 식품일자리창출 프로그램개발 : 연구 및 보조, 기술인력 양성
- 한국식품연구원과 도내 대학 간 식품분야의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술협력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이전기관인 전력거래소는 전남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주 실무강좌를 교육센터 내에 개설하기로 했음.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점이수가 가능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재직자 교육 등을 시행해 향후 관련 분야의 취업과도 연계할 예정임.

3)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측면

□ 가공무역형 식품단지 조성

- 농생명클러스터 소속 기관들과 도내 지원기관들이 참여하여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가공 및 식품바이오 위주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 전북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 중 식품바이오 관련 기업을 유치
- 사업내용
 - 기술개발이 중심인 식품가공, 식품바이오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수출지원(혁신도시내 식품산업단지 조성, 10만평 규모)
 - 수출바이어 알선, 수출관련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수출지원 등 관련 서비스 제공)
- 유치대상 기업 : 식품가공, 식품바이오 기업, 원부자재 공급 및 유통관련기업 적극 유치

□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계획 : 150개 식품기업, 10개 민간연구소, 6개 기업 지원 시설(H/W), 이주단지 등

- 주요 유치업종 : 기능성·바이오식품, 발효식품, 쌀가공
- 식품, 식품첨가물 등 소재식품, 기호식품을 '5대 핵심 전략식품'으로 선정, 집중 육성
- 발효·기능성식품 등 고부가 가치화 품목과 수출품목 주력 기업 입주

〈표 4-10〉 국가식품클러스터 MOU 체결 국내 기업·연구소 현황(2013.1)

MOU 체결분야	기업	업종	
투자협약	CJ 제일제당	가공식품 제조업	
	동원 F&B	종합식품회사, 참치, 김치, 햄, 만두 등 식품생산 및 물류	
	로지스올	물류시설 및 물류전문연구소	
	인터볼로그룹	케이터링용 식품가공, 포장	
	(주) 하림	가금류 가공·저장	
	웰팜	액상파우치 제조	
	한성기업(주)	수산가공품	
	인천콜드프라자(주)	냉장창고업	
	(주) 태방파텍	농산물, 식품류 포장재지	
	청학 F&C(주)	유지류, 고춧가루류, 냉동야채류	
	(사) 한국자라생산자협회	자라양식산업발전 협회	
	(주) 참고을	장류	
	(주) 삼우냉동	아이스크림	
	(주) 한미식품	절임식품	
	(주) 신원에프아이	복합조미료	
	(주) 뉴지상사	수산물가공	
	(주) 다영수산	수산물 가공	
	(주) 디에스알푸드	가금류 가공	
	(주) 에이치엔에프	소스류	
	(주) 원광제약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주) 웨미리식품	비스켓, 아이스크림	
	(주) 일원포장	식품포장재	
	콩장군 식품	건강식품	
	(주) 에이원푸드	냉동수산물 가공(연어)	
	(주) 한샘종합식품	식육가공 및 즉석요리	
	(주) 삼점삼소스코	소스류, 육가공류, 김치류	
	(주) 진선	농산물 가공	
	(주) 여송에프에스	수산물	
	(주) 맑은물에 신기산업	두부류, 목류, 나물류	
	(주) 은성식품	면류	
	(주) 푸드웨어	냉동만두류	
	신포우리만두	만두류, 면류	
	장독대	반찬류, 된장, 고추장	
	(주) 식&락	고구마 가공식품	
	농업회사법인 황금미가(유)	농산물 가공	
	동양종합식품(주)	육가공제품 및 소스류	
	초록들	농산물가공	
	(주) 푸른들식품	두유류	
	제이팜스	야채, 양념, 분말, 소스류	
	업무협조	(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원광대(원광식품 산업연구원)	국내 대학
FDA Trading(주)		국내 연구소	
한국식품공업협회(한국식품연구소)		국내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내연구소(지경부산하)	
중앙대		국내 대학	
(주)매일방송, (주)매경헬스		국내 언론사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대표처	해외 언론사
세종대	국내 대학
농업정책 자금관리단	국내 유관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내 유관기관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내 유관기관

〈표 4-11〉 국가식품클러스터 MOU 체결 해외 기업·연구소 현황(2013.1)

MOU 체결분야	기업	소재지	업종
투자협약	썬옵타	캐나다	유기농 식품음료제조
	자룩스	일본	항공기 기내식 및 식자재 유통
	IS FRA SKARO	덴마크	냉동 유제품
	Festivalo	일본	고구마가공식품
	바이오제노믹스	일본	유산균 등 미생물 연구 개발하는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업체
	상해타이더리식품음료유한공사	중국	음료, 유제품 제조
	인스턴트랩	미국	연구소
	보화그룹	중국	농축산 가공, 식품음료 사업 등
	북경록색서생투자유한공사	중국	건강보조식품
	JD's Seafood Export Contractor	호주	냉동육, 수산물가공 등
	(유) 기송	싱가폴	가금류 가공식품
	DART COFFEE	일본	커피류
	Sira Halal Food Industries	말레이시아	할랄식품, 할랄음료
	웰스프링사	미국	식음료
	신명	일본	식료품 가공
초노식품공업	일본	현미유, 공업유지 제조	
난요비조이	일본	수산물가공, 식육/반찬류	
업무협조	동네덜란드개발청	네덜란드	-
	해안관파실업유한공사	중국	김, 수산물 양식
	GMP Commodities	인도네시아	수산물
	Campden BRI	영국	식품기술연구
	원당시(文堂)	중국	해외 지자체
	요령성 동향시	중국	해외 지자체
	중한기업련의회	중국	해외 협회
	Skane Food Innovation Network	스웨덴	해외 협회
	국제한인식품 주류상총연합회	미국	국내 협회
	Packbridge	스웨덴	패키징협회
	클랭할랄 식품클러스터	말레이시아	클러스터
	상해식품연구소	중국	-
	미시건 주립대 포장학부	미국	-
	DTI 포장유통연구소	덴마크	-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EU	-
	밀라노 상공회의소(PROMOS)	이탈리아	-
	VITAGORA	프랑스	-
	상해시 식품협회	중국	-
	산동성표준화협회	중국	협회/기관

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

4)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 푸드시티 내 식품문화 시설·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2015~)
 - 전통·첨단식품 제조 체험·전시장, 8도 식품박물관, 지역문화관 등
 - 세계 5대 대륙별·주요 국가별 및 8도별 특색을 테마로 한 공원 (야외 박람회장)
- 순창·임실·남원의 식품산업과 연계된 식품 발효 클러스터 벨트 조성
- 무주·진안 등 청정 관광지역과 결합된 식품체험관광 클러스터 벨트 조성
 - 익산 한방, 정읍 생물·생명,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 김제 파프리카, 완주 여성한방, 진안 홍삼한방, 장수 한우/사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고창 복분자, 부안 젓갈 등을 연계한 벨트 조성

5) 지역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어린이 식품과학교실 개최
- 어린이 초청 '과학탐방 나들이'
- 불우이웃돕기 직원걷기대회 성금기탁

〈표 4-12〉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협력)	업무협력, 공동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	중· 단기 연구과제 수행,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기술 애로사항 발굴 해결 공동 연구개발 및 공동 관심사항 협의, 기술정보 교류(OJT교육, 세미나 등) Pilot plant 또는 특수 생산설비의 설치, 운영
인력양성	식품일자리창출 프로그램개발(인재양성MOU체결) 필요	
지역경제활성화	순창·임실·남원의 식품산업과 연계된 식품 발효 클러스터 벨트 조성 무주·진안 등 청정 관광지역과 결합된 식품체험관광 클러스터 벨트 조성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가공무역형 식품단지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지역사회공헌활동	어린이 식품과학교실 개최 어린이 초청 '과학탐방 나들이' 불우이웃돕기 직원걷기대회 성금기탁	

참고 1

지식경제부 산하의 공공기관-지역대학 MOU 체결(2012.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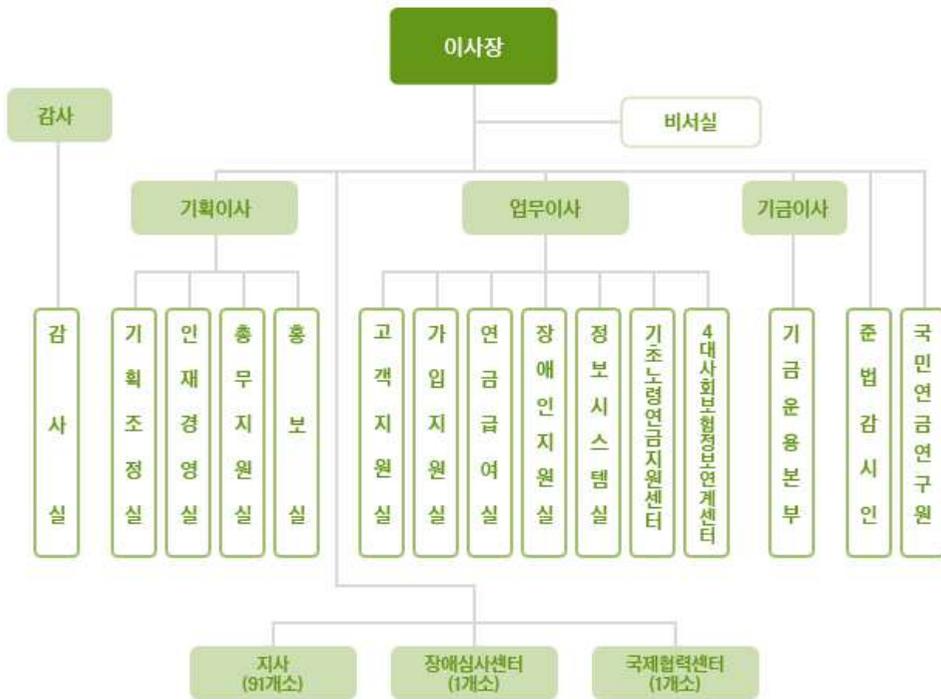
분 야	기 관	대 학
에너지자원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대학교, 관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에너지관리공단	울산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 전	한국남동발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남동발전(주)	경상대학교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대학교
	한국동서발전(주)	울산대학교
	한국서부발전(주)	한서대학교
산업기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경상대학교
전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전력거래소	전남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경북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김천과학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영남대학교
합 계	15개 기관	17개 대학

제 2 절 교육 및 복지 군(群)

1. 국민연금공단

가. 기본방향

-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기능은 연금복지서비스 제공과 기금운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임.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복지서비스 제공이 핵심기능이고, 세부 업무는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임.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이전승인인원은 583명(본부 573)이며, 예산은 95,944억원임. 이전시기는 2014년 12월 예정임.
- 국민연금공단은 조직내부적으로 기능에 따라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본사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로 분류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관련 인력들의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기금운용본부 및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기관들의 지방이전 유치,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됨.
-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가지 시나리오 대응방안을 제시함.



〈그림 4-4〉 국민연금공단의 조직도

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 전체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 전체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기금운용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토대로 전라북도를 동북아 금융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 것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시 연기금을 투자 받은 기업과 금융투자업체 등의 본점과 지점의 전북이전,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전북지점 설치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를 금융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임.
- 둘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시 기금운용본부 인력(160명)과 국민연금공단 본사인력의 도내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임.

- 셋째,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기능을 토대로 복지서비스 분야의 장기적 투자가능사업을 발굴하는 것임. 즉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북지역의 특성(고령화 등)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장기적 투자가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LH 경남일괄 이전으로 발생한 잔여부지 98천㎡를 활용)
- 넷째, 지역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임. 예를 들어, 군산시 옥도면과 어촌사랑1사1촌 자매결연, 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및 교류, 사회복지 분야인재 장학금, 신사옥에 어린이집, 쉼터 공간 개방 등을 들 수 있음.

○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시 기금운용본부 인력(160명)을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본사인력의 도내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임.
- 둘째,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기능을 토대로 복지서비스 분야의 장기적 투자가능사업을 발굴하는 것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북지역의 특성(고령화 등)에 부합하는 투자가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LH 경남일괄 이전으로 발생한 잔여부지 98천㎡를 활용)
- 셋째, 지역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임. 예를 들어, 군산시 옥도면과 어촌사랑1사1촌 자매결연, 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및 교류, 사회복지 분야인재 장학금, 신사옥에 어린이집, 쉼터 공간 개방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의 협력 방안은 아래와 같음.

〈표 4-13〉 국민연금공단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제1안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 본사 이전시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운용본부 인원 160명 + 국민연금공단 본사 인력의 유입의 도내유입 추진 및 정착화
		관련 기관들의 지방이전	연기금을 투자받은 기업, 금융투자업체 등의 본점과 지점 유치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전북지점 설치 추진
		지역사회 공헌활동	복합실버타운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군산시 옥도면과 어촌사랑1사1촌 자매결연 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및 교류 사회복지 분야인재 장학금, 신사옥에 어린이집, 쉼터공간 개방
제2안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본사 이전시	지역경제활성화	국민연금공단 본사 인력의 유입의 도내유입 추진 및 정착화
		지역사회 공헌활동	복합실버타운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군산시 옥도면과 어촌사랑1사1촌 자매결연 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및 교류 사회복지 분야인재 장학금, 신사옥에 어린이집, 쉼터공간 개방

국민연금공단의 복지투자 대상사업의 논거

□ 논거

-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실버타운의 수요가 증가.
-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후 가입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친밀감 조성 수단으로 적합한 투자 수단임.
- 실버타운 사업은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제도로써 보험료 납부기간동안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연금수급자수 및 연금액지급규모의 기하급수적인 팽창에 따른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복지투자 대상사업 : 복합실버타운-건강문화클러스터

- 건강문화클러스터 : 선진국형 체육공원 속에 노후주거복지 및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국민건강 제일주의시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건강문화복합지역임.
- 노인친화형 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선진국 젊은이들이 즐기는 체육활동·레저, 첨단보건의료, U-교육,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연구·첨단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구역임.

□ 복지투자 대상사업에 관한 연구

- 복지사업 욕구조사(2005)의 조사결과 : 시행적합도 설문조사를 통한 가장 바람직한 복지사업 분야로는 첫째, 노인복지시설사업(85.7%) 둘째, 보육시설사업(76.3%) 셋째, 실버타운 사업(67.1%) 넷째, 역모기지론 사업(58.3%), 다섯째, 주택사업(57.7%) 여섯째, 장묘사업(53.5%), 일곱째, 휴양·레저시설사업(19.2%)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유상현(2005)의 연구 : 공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결과 시설사업의 우선순위는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의료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휴양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05)의 연구 : 사회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제안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사회적 타당도와 경제적 타당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실버타운, 임대주택사업, 보육사업, 장묘사업 순으로 나타났음

□ 기대효과

- 기금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장기투자 운용수익원을 발굴하여 기금의 수익에 기여
- 현세대 가입자에게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기회와 희망 제공 및 연금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됨

2. 지방행정연수원

가. 기본방향

-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공무원 인재양성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역 최고 리더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지원임. 이전승인인원은 106명이며, 예산은 392억원임. 이전시기는 2013년 8월 예정임.
- 지방행정연수원은 2012년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연인원 11만8293명이 교육을 받으러 방문했고, 이들의 숙박비와 식비만 수억~수십억으로 추정됨.
-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학·연 협력,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됨.
- 이에,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지방행정연수원의 협력방안은 아래와 같음.

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1) 학·연 협력 측면

- 지방공무원교육 역량강화 컨설팅' 연구보급
- 지방공무원 역량진단 시스템 개선·보급
- 지방행정연수원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정보 공유
- 우수강사 확보방안 협력
- 수도권 강사에 대한 유인책인 패키지 프로그램과 강사수당 조정, 전북지역 우수강사 DB 등에 대해 실행안 마련 및 시범운영 필요

- 전북지역 강사DB 구축 : 각 대학에서 강사 DB 공유 및 2012년 시범 출강 등 검증 필요(연수원 전북이전시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 현재 원내 출강강사 90%가 수도권 거주, 출강강사 110명 중 45명(41%)이 전북으로의 출강 불가의사 표시(2010. 10월 설문조사)
- 수도권 강사에 대한 출강 유인책 마련(숙박편의 제공 및 문화탐방프로그램 운영)
- 전북인근 지역 강사 DB 구축 및 호남권 우수강사 발굴 등.
- 연수원 접근성 강화(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노선 확보 등).
- 교육생 확보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화·협의 및 이전홍보 강화.
 - 한지공예, 비빔밥 만들기 등 전북지역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2012년 장기과정 교육생 현장학습에서 시범적용 운영.

2)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 교육생들을 위한 숙박시설 및 관련시설의 정비

- 2011년 현재 총 149개 과정에 15만 6270명이 교육에 참여함.
 - 지방공무원과 지방선출직, 지방공기업, 외국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집합교육이 79개 과정에 6270명(연인원 151만 8293명, 사이버교육 70과정에 15만 명)참여.
 - 2011년의 경우 : 전국 16개 시·도에서 연인원 11만 8293명이 찾아옴. 이들이 도내에서 사용하는 숙박비와 식비가 수억~수십억으로 추정됨.

3) 지역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개발

- 직원과 연수생이 참여하는 희망나눔뱅크 조성기금 활용방안
- 자매결연 봉사

〈표 4-14〉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학연 협력	도 공무원교육원과의 협력(교과과정, 교재개발 등)
	지방행정연수원 강사모집 DB구축
지역경제활성화	교육생들을 위한 숙박시설 및 관련시설의 정비
지역사회공헌활동	직원과 연수생들이 참여하는 희망나눔뱅크 조성기금 활용방안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가. 기본방향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판정임. 세부 업무는 국내간행물심의, 외국간행물심의 등임. 이전승인인원은 47명이며, 예산은 116억원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다양한 출판과 독서문화 관련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출판·독서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고, 전북도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를 통한 지역연계 활동,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됨.
- 이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협력방안은 아래와 같음.

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1) 지역 연계사업'의 발굴

- 중소출판사 청년인턴 지원 사업, 소외계층 대상 출판 문화체험 캠프.

2)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개발

- 우수도서 선정 지원 사업, 소외지역 어린이 대상 '책나라 여행' 개최.
- 45개 교도소에 가정회복 독서프로그램 지원.
- 수험생을 위한 북콘서트 / 지역서점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
- 여름방학 교사 독서 교육 직무연수 / 독서 아카데미.
- 온라인 독서동아리, 직장 독서동아리, 학교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표 4-15〉 출판문화산업진흥원(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지역연계사업	중소출판사 청년인턴 지원사업
지역사회공헌활동	우수도서 선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출판 문화체험 캠프) 45개 교도소에 가정회복 독서프로그램 지원 소외지역 어린이 대상 '책나라 여행' 개최 수험생을 위한 북콘서트 / 지역서점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 여름방학 교사 독서 교육 직무연수 / 독서 아카데미 온라인 독서동아리, 직장 독서동아리, 학교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제 3 절 국토정보신기술 군(群)

1. 대한지적공사

가. 기본방향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이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교육사업, 연구사업 등임. 이전승인 인원은 228명이며, 예산은 4,548억원임. 이전시기는 2013년 11월 예정임.
-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업무를 통해 해외시장을 진출함으로써 국가이미지와 지역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고 갈수록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대한지적공사가 전복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를 통한 지역연계활동, 지역사회공헌 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됨.
- 이에, 대한지적공사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과 대한지적공사의 협력 방안은 아래와 같음.

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1) 지역 연계사업의 발굴

□ 공익사업

- 무료경감 측량서비스(행복·희망나눔 측량)
-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호지원사업
- 경계점표지 설치 및 측량성과 배달 서비스
- 재난지역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서비스

□ 주민편의

- 찾아가는 서비스, '지적민원현장처리제'
- 민원 365일 서비스, 지적민원실운영
- 원스톱처리제도입 / 야간측량민원상담

2)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개발

□ 이웃 돌아보기

-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지원, 사랑의 헌혈 / 사회복지시설지원
- 소년소녀 가장/독거노인지원

□ 농어촌사랑

-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 일손 돕기, 특산품 구매

□ 환경보호

- 환경지킴이·문화재지킴이, 푸른 숲 가꾸기
- 재해시설 피해복구지원

□ 장학사업 : 신규채용시 전복인재 5% 채용목표제, 장학금지원 등 MOU 체결('12.11)

- 지적장학사업 / 측량전산·장비기증 및 교육지원, 새희망장학금 지원

□ 문화·체육진흥

- 사이클선수단 운영 / 문화·예술공연지원

〈표 4-16〉 대한지적공사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지역연계사업	무료경감 측량서비스(행복·희망나눔 측량)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호지원사업 경계점표지 설치 및 측량성과 배달 서비스 재난지역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지적민원현장처리제', 민원 365일 서비스, 지적민원실운영, 원스톱처리제도입 / 야간측량민원상담
지역사회공헌활동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지원, 사랑의 헌혈 / 사회복지시설지원 소년소녀 가장/독거노인지원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 일손돕기, 특산품 구매 환경지킴이·문화재지킴이, 푸른숲가꾸기, 재해시설 피해복구지원 지적장학사업 / 측량전산·장비기증 및 교육지원 새희망장학금 지원, 사이클선수단 운영 /문화·예술공연지원

2. 한국전기안전공사

가. 기본방향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안전관리가 핵심기능이고, 세부업무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 전기안전 미래경영 실천 등임. 이전승인인원은 296명(본사 296)이며, 예산은 2,326억원임. 이전시기는 2014년 4월 예정임.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를 통한 지역연계활동,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이전효과가 예상된다.
-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력방안은 아래와 같음.

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1) 지역 연계사업'의 발굴

- 기술협력 MOU 체결, 원광대와 '기술개발 인재양성 위한 협약' 체결.
- 고택관광자원화 협약 체결 :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읍 김동수 가옥, 남원 운영채 가옥, 장수 권희문 가옥을 관광자원화.

2)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개발

- 도내 다문화가정 무료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지원(12.5.23)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진안군3가족 12명, 15백만원)
- 지역 농수산물·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표 4-17〉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이전효과 유형	추진방안
지역연계사업	기술협력 MOU 체결
	'기술개발 인재양성 위한 협약' 체결
	고택관광자원화 협약 체결
지역사회공헌활동	도내 다문화가정 무료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및 장학금 지역 농수산물·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제5장

정책적 제언

제 1 절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반마련

제 2 절 공공기관 이전효과의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 5 장 정책적 제언

제 1 절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반 마련

1. 정보, 인력, 자본교류를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 전북혁신도시는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타 시, 도 및 해외의 농생명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부지역과의 정보, 인력, 자본 등의 교류가 가능한 지속적 협력을 추진(산·학·연 협력 활성화).

2.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의 개발

- 기업유치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지원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국내외 대규모 앵커기업을 탐색하고 이전의향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치전략을 구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대상기업의 탐색 및 유치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농·식품 관련 기업의 유치 등).

3. 이전 공공기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교육, 문화, 정주환경 등)

제 2 절 공공기관 이전효과의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 광역자치단체내에 혁신도시 성과 공유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

- 혁신도시와 인근 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과 성과공유를 위해 주변지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지역경제활성화 등).

2. 지역인재 우선 채용정책의 명문화 및 맞춤형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채용시, 도내 인재가 채용인원의 최소 5~10% 정도 채용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우선채용 정책을 명문화하고, 이전기관과 지역사회, 대학이 연계한 맞춤형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ex)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기관과 경상대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협약 등 기술인재 양성협약식 체결

3. 지속적인 이벤트 개발로 주민화합 도모

- 혁신도시 건설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축제성 이벤트를 기획·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이전기관의 대표, 임직원, 자치단체장, 시도민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발굴하여 지역의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지역사회공헌활동의 체계화).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산업연구원. (2008).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 김호 외 7인. (2006). 농업생명·생물산업 혁신클러스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 대구경북연구원.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 전라북도. (2006). 혁신도시와 산·학·연·관 연계 발전방안 연구-혁신도시 연계 기업유치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 농업진흥청 기관자체평가보고서(2012).
- 한국농수산대학 홈페이지.
- 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지방행정연수원 홈페이지.
-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
- 전북일보 기사.

부 록

-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
- 이전 공공기관의 기관별 건의사항
- 이전공공기관의 건의사항 대응현황
-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기사자료
- 지역발전 선도 인재육성 서약서 문안



부록 1)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

□ 조사개요

- 기 간 : 2011. 11. 23일 ~ 12. 20일
- 대 상 : 12개기관 임직원 (승인인원 4,693명)
- 응 답 율 : 60.18% (대상 3,518명/응답 2,117명)
 - 남성 70%(1,484명) 연령 40대 (40.3%),근무년수 10년이하 (42.6%)
- 주요내용
 - 가족동반 이주여부 및 시기, 주거형태
 - 혁신도시내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우선순위 및 건의사항 등

□ 조사결과

- 가족동반이주계획 : 46.5%, 평균동반가족 2.74명
 - 1년이내 이주 : 한국식품(66.5%) 농진청(60.2%) 식량과학원(59.8%)
 - 가족구성원 : 초등학생이하 30.1% 중·고 18.1% 대학 14% 배우자 37.9%
 - 기관이주후 가족이주 시기 : 6개월 이내 40%, 1년이내 24%, 2년 이내 14%, 2년이후 22%
- ※ 이주하지 않는 이유 : 자녀학업 지장우려, 배우자 직장문제
 - 주거형태 : 아파트 59.9% 원룸 15.7% 기숙사 13.4%, 단독주택 3.8%, 오피스텔 3.6%
 - 주거 계약방식 : 전세 47%, 매입 38%, 기타 15%

- 고등학교 유치형태 : 일반고 39.8%, 혁신학교 22.1%, 특수목적고 17.3%, 자율형사립고 16.6%, 기타 4.3%
- 정주여건 조성 : 양질의 주택공급 53.4% 우수교육환경 20.5%, 편리한 광역교통시설 11% 우수의료기관 5.7%, 기타 9.4%
- 혁신도시 인지도 : 잘알고 있다 21.8% 보통51.5% 모르고 있다 16.6% ⇒ 추가적인 홍보 요망

부록 2) 이전공공기관의 기관별 건의사항

지원항목	건의사항	비고
주택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시 저분양가 및 저금리 대출시행(농업과학원)(축산과학원)(농촌진흥청)(지방행정연수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 •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 특별분양(농업과학원)(국민연금공단) • 국내외 우수연구원 유지를 위해 기숙사 및 사택 시설 마련(농업과학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 • 계약직원을 위한 기숙사 마련(농업과학원) • 독신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및 오피스텔 마련(농업과학원)(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 • 세종시와 유사한 계약방법(계약금 소액과 후불 일괄계약 등) 마련(농업과학원) • 임대아파트 확충(농업과학원)(농촌진흥청) • 전주, 완주에 거주해도 직장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주택청약 자격부여(농업과학원) • 분양가 550만원미만 요청(농업과학원) • 독신자 임대시설 확충(원예특작과학원)(농촌진흥청) • 공동주택 적절한 분양가 책정 요청(원예특작과학원)(국민연금공단) • 연구소내 사택건립(원예특작과학원)(축산과학원)(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 • 공동주택 완공시점과 공공기관 이전시점에 차이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원예특작과학원)(국민연금공단)(한국식품연구원) • 소형아파트(15~7평) 건립(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대학) • 공동주택 분양가 인하(농촌진흥청)(한국간행물)(한국전기안전공사)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농업과학원)(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대한지적공사)(한국농수산대학)(한국전기안전공사) • 어린이 교육시설 마련(농업과학원)(한국전기안전공사) • 이전하기전까지 교육시설완비(원예특작과학원)(농촌진흥청) • 좋은 학군형성(축산과학원) • 혁신도시 이전자녀에 대한 특별전형(농촌진흥청) • 외국어고 유치(농촌진흥청) • 수도권내 명문대학 혁신도시 유치(농촌진흥청) • 혁신학교 등 우수교육여건 조성(대한지적공사)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관공서 설치(국립농업과학원)(대한지적공사) • 인근시(KTX 익산역 등)와 대중교통 확충을 통한 가족동반 이전 유도(국립농업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국민연금공단) • 우수한 의료기관유치 등 의뢰서비스 마련(국립농업과학원)(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대한지적공사)(지방행정연수원) • 대형마트 등 쇼핑시설 마련(국립농업과학원)(농촌진흥청)(지방행정연수원) • 문화시설(도서관, 공연장 등) 건립(국립농업과학원)(축산과학원)(국민연금공단) • 부모님 부양을 위한 시설확충(국립농업과학원) • 치안을 위한 경찰서 설치(식량과학원) • 대중교통 노선확충(식량과학원)(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향후 첨단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식량과학원) 	

지원항목	건의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에 차가 없는 녹색도시 건설(식량과학원) • 고속도로 신속접근 가능한 IC설치(원예특작과학원) • 편리한 교통과 편의복지시설(원예특작과학원)(지방행정연수원)(한국농수산대학) • 기존 도시와의 유기적인 교통등 연계망 구축이 시급하며 혁신도시내 순회버스 운영으로 기존도시와 교통연계 필요(축산과학원)(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 •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관광특구와 정주생활권연계(축산과학원) • 대중교통(지하철등) 확충(축산과학원) • 문화복지시설 대폭할인 또는 무료입장(국민연금공단) • 전원마을 조성(국민연금공단) •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시설 설치(농촌진흥청) • 전용 자전거 도로 확보(농촌진흥청) • 기차, 고속버스 환승체계마련(농촌진흥청) • 문화체육등 종합센터 설치(농촌진흥청) • 고속철도(KTX)역 유치(한국전기안전공사) • 버스터미널 설치(한국전기안전공사) 	
경제적 직접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모두 이주시 인센티브 마련(농업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한국식품연구원) • 배우자 직장 알선(농업과학원)(한국식품연구원) •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부여(농업과학원) • 일정기간 생활지원금 지원(농업과학원) • 주택분양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도시 정보 제공요청(농업과학원)(국민연금공단) • 무이자전세대출(국민연금공단) • 출산장려금 지급(국민연금공단) • 직원이주대책 구체적으로 제시(국민연금공단) • 자동차세 등 세제 감면(농촌진흥청) • 이주정착금 지원(농촌진흥청) 	

부록 3) 이전공공기관의 건의사항 대응현황 (2011년 12월 현재)

【설문조사 기간 : '11.11.23~12.20】

총계	총 37건 (완료 11, 추진 21, 기타 5)		
주택문제 해결 총 7 완료 3 추진 2 기타 2	• 이전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분양시 저렴한 분양가 공급 및 저금리 대출시행	• 저렴한 분양가 책정유도 및 대출알선 노력하겠음	추진
	•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 특별분양	• 공급량 50%이상 특별분양	완료
	• 국내외 우수연구원 유치와 계약직원을 위한 연구소내 기숙사 및 사택시설 마련	• 공공기관별 시행	-
	• 독신자를 위한 임대A(15~7평) 및 오피스텔 마련	• 임대A 3,604세대 공급예정	완료
	• 세종시와 유사한 계약방법(계약금 소액과 후불 일괄계약 등) 마련	• 민간분양사에 계약방법권장 유도에 노력하겠음	-
	• 전주, 완주에 거주해도 직장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주택청약 자격부여(농업과학원)	• 자격부여	완료
	• 공동주택 완공(입주)시점과 공공기관 이전시점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 시점 차이를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음	추진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총 7 완료 2 추진 3 기타 2	• 공공기관 이전시기와 맞게 학교개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개교(예정) -14년(초1,중1), 15년(초1,중1)	완료
	• 어린이 교육시설 마련	• 유치원부지 4개소 분양완료	완료
	• 우수한 학교형성	• 검토중(주관:전북교육청)	추진
	• 혁신도시 이전자녀에 대한 특별전형	• 검토중(주관:전북교육청)	추진
	• 외국어고 유치	• 혁신학교등 우수학교 추진중	-
	• 수도권내 명문대학 혁신도시 유치	• 검토하겠음	-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총 15 완료 3 추진 12 기타 0	• 문화시설(도서관, 공연장 등) 건립	• 추진중(문화체육복지시설 5개소)	추진
	•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시설 설치	• 계획완료(경찰서1,소방서1,우체국1)	완료
	• 인근시(익산역,전주역등)와 대중교통 확충을 통한 가족동반 이전 유도	• 관계기관 협의중	추진
	• 혁신도시내외 순환버스 운영으로 기존도시와 교통연계	• 관계기관 협의중	추진
	• 버스터미널 설치 등 기차, 고속버스 환승체계마련	• 관계기관 협의중	추진
	• 고속철도(KTX)역 유치	• 환승체계계획 중	추진

총계	총 37건 (완료 11, 추진 21, 기타 5)		
	• 우수함 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서비스 마련	• 관계기관 협의중	추진
	• 대형마트 등 쇼핑시설 마련	• 관계기관 협의중	추진
	• 부모님 부양을 위한 노인복지시설확충	• 추진중(문화체육복지시설 5개소)	추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향후 첨단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검토하겠음	추진
	• 지상에 차가 없는 녹색도시 건설	• 녹색도시건설	완료
	•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새만금 관광특구와 혁신도시 생활권연계	• 검토중	추진
	• 전원마을 조성	• 녹색도시건설 추진중	완료
	• 전용 자전거 도로 확보	• 완료	추진
	• 문화복지시설 할인 또는 무료 이용 지원	• 관계기관 협의중	추진
경제적 직접지원 등 총 8 완료 3 추진 4 기타 1	• 배우자 직장알선 및 교육지원	• 관계기관 협의중	-
	•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부여	• 동일혜택 부여	완료
	• 주택분양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혁신도시 정보 제공	• 추진하겠음 (세부계획수립 추진)	추진
	• 일정기간 생활지원금 및 이주정착금 지원	• 관계기관 협의중	추진
	• 무이자 전세금 대출 지원	• 관계기관 협의중	추진
	• 출산장려금 지급	• 전주:셋째이상,월10만원,1년/완주: 첫·둘째30만원,셋째이상120만원)	완료
	• 세제 감면 지원	•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완료
	• 가족모두 이주시 인센티브 지원	• 관계기관 협의중	추진

부록 4)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기사자료

1) 지방행정연수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92659>)

정치
정치일반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①지방행정연수원
국내·외 공무원 대상 최고 교육기관 지향

구대식 | 9press@jjan.kr

승인 2011.04.13 18:53:4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지방행정연수원 전경. (desk@jjan.kr)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이전기관의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착공식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들은 올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2년까지 완공해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전기관이 모두 들어서면 당장 지방세 271억, 인구유입 5,288명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보는 이들 12개 이전 기관들의 이전 상황과 파급 효과를 연재한다.

1. 지방행정연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지방행정연수원 주변에는 대규모 하숙마을이 들어서있다. 총 38가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지만 하숙생이 1만여 명으로 늘 붐비고 있다. 몸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고용창출이나 상가 매출 증대 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총 1735억원을 들여 부지 18만1794㎡, 건물 4만7444㎡ 규모로 들어선다. 오는 7월 착공해 오는 201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주관한 스리랑카 지방공무원 행정발전과정. (desk@jjan.kr)

▲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으로 각광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 1965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지방공무원 최고의 교육기관. 지방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세계 최고 교육기관이란 비전아래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부급 공무원의 교육기관. 전국에 있는 시·도 공무원의 교육 지원 및 민·관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연구사업과 컨설팅 지원사업까지 종합적 기능도 수행한다. 최근에는 영역을 확대했다. 선진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선출직 과정과 지방공기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만 총 149개 과정에 15만6270명이 교

육을 받는다. 지방공무원과 지방선출직, 지방공기업, 외국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집합교육이 79개 과정에 6270명(연인원 151만8293명), 사이버 교육이 70 과정에 15만명 받는다.

▲ 세계 최고 교육기관으로 탈바꿈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지원·협력을 통해 지방교육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아온 지방행정연수원은 한국의 발전 신화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및 국제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교육에만 몰두해오던 것에서 뛰쳐나가, 세계적인 공무원을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교육지원은 물론 연구사업과 컨설팅 지원사업이 동시에 펼쳐진다.

대표적으로 태국 방콕 인사위원회 공무원 역량강화과정, 개도국공무원 지방행정과정, 스리랑카 지방공무원 행정발전과정, 이라크 KRG 지역개발 정책, 몽골 고위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필리핀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 탄자니아공무원 행정발전과정 등을 운영했다.

▲ 교육생 숙박비만 연간 수십억

지방행정연수원의 정원은 현재 101명. 직원 한 명당 딸린 가족을 3명으로 계산할 때 약 300여 명이다. 이들이 전북도에 이전해오면서 당장 인구 증가와 지방세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전산보조(2명)와 식당영양사(1명), 구내식당 조리원(8명), 환경미화(17명), 시설관리(22명) 등 연간 5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지방세도 연평균 1730만원(지난해 기준) 정도 납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전국에서 찾아오는 교육생들이 쓰고 가는 숙박비. 지방행정연수원은 올해에만 전국 16개 시·도에서 연인원 11만8293명이 찾아온다. 이들이 도내에서 먹고자는 숙박비와 식비만 수억~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 농촌진흥청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93446>)

경제
산업·기업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②농촌진흥청

6월 착공...내년까지 산하기관 4곳과 함께 입주...농업관련 연구개발 중심...지역 발전 기여할 듯

구대석 | 9press@jjan.kr

승인 2011.04.20 18:09:50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오는 6월 착공할 농촌진흥청 조감도. (desk@jjan.kr)

농촌진흥청은 '잘사는 농촌', '부자 농민'을 만들기 위한 국가 사령탑. 농촌·농업과 관련해 시험·연구, 지도·양성, 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업발전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2년 말까지 총 1조7893억원을 들여 4개 소속기관과 함께 들어선다. 오는 6월 착공할 예정이다.

▲ 잘사는 농촌 만드는 사령탑

농촌진흥청은 '잘사는 농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이란 목표아래 성장 동력 창출과 강소농 육성, 세계 공헌 등을 주요 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물 육종재배와 식품환경, 농업기계, 유전자원 등 농업기술을 연구한다. 또 농민교육과 기술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현장지도와 지도자와

지도기관, 연구원 등에 대한 농민교육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첨단IT와 식물 고부가치 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FTA 등 시대변화에 걸맞게 우리 농촌이, 우리 농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 나선 것이다.

소속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이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다양한 연구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 소속기관들도 모두 전북혁신도시에 동반 이전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촌·농업과 관련해 시험·연구, 지도·양성 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desk@jjan.kr)

▲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작지만 강한 농민을 만들기 위한 '강소농(強小農)'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독창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소량의 특화된 상품을 요구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

우리나라 농업은 영농규모 1ha 미만의 소규모 가족농이 전체의 76.7%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 이를 감안, 농가 단위의 경영진단·분석 등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기술을 지원해 기존보다 10% 이상 소득을 더 올리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농촌진흥청은 오는 2015년까지 10만 강소농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장 올해에만 시·군당 평균 100 농가씩 전국에 모두 1만5000개의 강소농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해서 작은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의 한계를 꿈과 열정을 가진 창의적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뛰어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도 전복, 업그레이드 할 견인차

당장 농촌진흥청이 들어옴으로써 연간 35만명의 보조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농촌진흥청과 4개 산하기관의 시험포 등에서 일하게 된다. 또 정규인력 2087명 등 모두 3080명이 이전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인규유입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인력에게는 월 2만9500원에서 5만3000원의 노임이 지급, 연간 170여 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는 연간 180여회의 국내·국제 회의가 열리게 된다. 여기에도 국내외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찾아옴으로써 지역 내 식당과 모텔 등 상가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뿐만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농업관련 R&D(연구개발) 기관이 들어선다는 것을 말한다. 농도 전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3) 국립농업과학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94213>)

경제
산업·기업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③국립농업과학원

농작물 보호·생물자원 산업화 기술 개발...직원 500여명

구대식 | 9press@jjan.kr

승인 2011.04.27 19:26: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 들어서 있는 국립농업과학원 전경. (desk@jjan.kr)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과 농촌의 농작물 보호와 생물자원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다. 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품종개량과 유전 육종법 개발을 주업무로 한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이들은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다른 2개 기관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2012년 말까지 총 1조7893억원을 들여 이전해온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농촌 환경자원의 유지 보전, 농작물 보호 및 유용 생물자원 산업화 기술 개발 등이 주 임무다. 또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농업생산 자동화·로봇화 및 수확 후 관리기계기술 개발,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확보 및 실용화, 농·식품 및 한식의 세계적 상품화 기술 개발, 국가농업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 등도 한다. 국가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초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최고 농업연구기관인 것.

지난 1962년 2월 식물환경소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이어 1973년 7월 농업기술연구소로 바뀌었으며, 1998년 8월 잠사곤충연구소를 통합했다. 지난해 6

- 101 -

월에는 직제개편으로 작물보호과와 농업미생물팀을 신설했. 현재는 6부 1센터, 23과 1팀 체제로 운영된다. 농업환경부와 농업생물부, 농산물안정성부, 농업과학부, 농업생명자원부, 농·식품자원부, 농업유전자원센터 등이 중심부서다.

앞으로 전북혁신도시가 들어서면 당장 500여 명의 직원이 이주해온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 들어서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에는 연구직 391명과 농업직 1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박사 후 연구원과 행정보조, 연구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에 연간 9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월 110만원에서 3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http://www.i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94214>)

경제
산업기업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④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배법 개선 품종 개량 등 연구·기술 개발...직원 330여명 이주

구대식 | 9press@ijan.kr

+ -   

승인 2011.04.27 19:27:2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일원에 들어서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경. (desk@ijan.kr)

농업·농촌 환경자원의 유지 보전, 농작물 보호 및 유용 생물자원 산업화 기술 개발 등이 주 임무다. 또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농업생산 자동화·로봇화 및 수확 후 관리기계기술 개발,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확보 및 실용화, 농·식품 및 한식의 세계적 상품화 기술 개발, 국가농업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 등도 한다. 국가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초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최고 농업연구기관인 것.

지난 1962년 2월 식물환경소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이어 1973년 7월 농업기술연구소로 바뀌었으며, 1998년 8월 잠사곤충연구소를 통합했다. 지난해 6월에는 직제개편으로 작물보호과와 농업미생물팀을 신설했. 현재는 6부 1센터, 23과 1팀 체제로 운영된다. 농업환경부와 농업생물부, 농산물안정성부, 농업과학부, 농업생명자원부, 농·식품자원부, 농업유전자원센터 등이 중심부서다.

앞으로 전북혁신도시가 들어서면 당장 500여 명의 직원이 이주해온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 들어서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에는 연구직 391명과 농업직 1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박사 후 연구원과 행

- 103 -

정보조, 연구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에 연간 9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월 110만원에서 3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5) 국립식량과학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73>)

경제
산업·기업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⑤국립 식량과학원
안정적 곡물 생산 연구 주력...녹색성장시대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도 나서
구대식 | 9press@jjan.kr

승인 2011.05.04 18:17:41

C B f P N 8



세계를 선도하는 녹색 식량자원 연구의 허브기관인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desk@jjan.kr)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은 식량자원과 축산자원을 연구하는 곳이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잘사는 농촌, 부자 농민'을 만들기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이전해옴으로써 향후 전북지역의 농업과 식품관련 클러스터는 더욱 완성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를 선도하는 녹색 식량자원 연구의 허브기관. 지난 1962년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으로 발족한 이후 2004년 작물과학원, 2008년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개편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 작물의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및 공익적 기능 확대 등 한국 농업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달려왔다.

최근 들어 시대흐름에 맞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작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적성, 건강·기능성 식품 및 신소재개발 등 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환경 친화적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나섰다. 그동안에는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품종육

성과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해왔다. 지난 70년대 '통일벼' 개발을 통해 우리 민족의 영원이던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었던 중심기관이기도 하다.

현재 수원에 위치한 본부를 비롯해, 전북 익산의 벼맥류부와 경남 밀양의 기능성작물부, 강원도 평창의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전남 무안의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등이 있다. 춘천, 철원, 영덕, 상주출장소와 진부, 남양시험지 등이 뒤를 받치고 있다.

식량과학원에는 연구직 256명과 지도직 4명, 연구지원 89명 등 모두 349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와서는 행정보조와 전산보조, 작물 재배관리 등의 분야에서 72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월 100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6) 국립축산과학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74>)

경제
산업-기업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⑥국립 축산과학원

축산물 경쟁력 높이기 앞장...동물생명공학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도 추진

구대식 | 9press@jjan.kr

+ -

승인 2011.05.04 18:18:58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과 쾌적한 축산환경을 위한 국내 유일의 축산연구개발 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전경. (desk@jjan.kr)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공급, 쾌적한 축산 환경을 위한 국내 유일의 축산연구개발 기관이다. 지난 1952년 농림부 중앙 축산기술원으로 발족한 이후, 지난 2004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축산연구소, 지난 2008년 축산과학원에서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개편됐다.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과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기후변화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수출기술 개발,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개발,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축산기술 개발, 축산자원을 이용한 신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축산물 및 축산식품의 안전성·부가 가치 향상 기술 개발, 축산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등 시대수요에

- 107 -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에 본부가 있으며, 충남 성환에 축산자원개발부, 강원 평창에 한우 시험장, 전북 남원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제주에 난지축산시험장 등이 있다.

축산과학원에는 연구직 163명과 기능직 116명, 행정직 24명 등 모두 569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정규직 250명도 근무하고 있다. 특히 행정보조 25명과 연구보조 110명, 작물 재배관리 10명 등 연간 175명을 고용할 계획이어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7) 국립한국농수산물대학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95834>)

경제
산업·기업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⑦국립 한국농수산물대학교

미래 농·수산업 지도자 양성 사관학교...8개 학과 800여명 전교생 국비 지원 해외 연수

구대식 | 9press@jjan.kr

승인 2011.05.11 18:04:31



국립 한국농수산물대학교 화훼학과를 졸업한 최승혁 씨(왼쪽)는 다양한 관엽식물을 재배하며 연간 2~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국립 한국농수산물대학교 전경. (desk@jjan.kr)

한국농수산물대학교. 한마디로 부자 농민을 육성하는 사관학교다. 졸업자의 상당수가 연평균 1억이상 벌어들이면서 농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만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오면 농촌진흥청 산하기관들과 함께 농업분야 R&D(연구개발) 시스템을 완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 한국농수산물대학교가 지난 3월 초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해병대 아카데미에서 개최한 '201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desk@jjan.kr)

▲미래 핵심산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잡은 국립 한국농수산대. 지난 1997년 3월 3년제 전문 학사로 운영하는 국립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 이후 2007년 3월 한국 농업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2009년 10월에 한국농수산대학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등 발전을 거듭해왔다.

현재 3년제로 운영되는 한농대는 총 4개 계열·8개 학과에서 822명의 재학생이 미래 농수산업의 지도자를 꿈꾸며 학문에 매진하고 있다. 1학년 306명, 2학년 232명, 3학년 284명 등이다. 작물계열로 식량작물학과, 특용작물학과, 원예계열로 채소학과, 과수학과, 화훼학과, 축산계열로 대가축학과, 수산계열로 수산양식학과 등이 있다.

한농대는 일반대학과 달리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1년)을 이수하면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문 농수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 기숙사 생활비 등 3년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재학 기간 중 2주간 유럽, 미국, 일본 등 단기국외연수를 보내거나, 1년간 선진 농수산업국으로 '국외장기현장' 실습을 파견하고 있다.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부농 후예

한국농수산대는 올 2월까지 총 12기 2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중 96.9%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지난해 농업소득은 7447만원으로 일반농가 소득(3081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소득을 올리는 졸업생도 23.1%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한농대 졸업생 평균 영농규모는 2만9259㎡다. 국내 농가 평균 경지규모인 1만4537㎡보다는 두배 이상 높은 것. 또한 졸업생의 평균 소득은 7447만원으로, 도시가구 연평균소득 4666만원과 일반농가 연평균 소득 3081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일반농가와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한농대 졸업생들의 소득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조사대상 졸업생 중 일반농가 평균소득(3081만원) 보다 높은 졸업생이 916명이고,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역대연봉자가 297명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 클러스터 완결될 듯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로 들어오면서 지방세와 고용인력, 농업분야 클러스터 구축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고용창출과 농업분야 R&D시스템 구축에서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인력의 경우에는 연간 65명 정도의 수요가 발생한다. 행정보조 40명을 비롯해 전산보조와 연구보조, 요리, 환경미화, 작물 재배관리 등에 10여명 안팎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사업이 늘어날수록 고용 인력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한국농수산대학이 들어옴으로써 농업분야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과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과 함께 농업분야 R&D(연구 개발) 분야를 지원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로 들어옴으로써 농업분야의 핵심 연구기관은 모두 이전해온다고 볼 수 있다"라며 "농도 전북의 특화분야를 살리고, 새로운 전략산업인 식품분야가 발전하는 데 기여토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8) 대한지적공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97203>)

경제
경제일반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⑧대한지적공사

첨단 측량시스템 개발...글로벌 공기업 위상 강화...신기술로 문화재 입체정보 취득 등서 블루오션 창출

구대석 | 9press@jjan.kr

+ - [icon] [icon] [icon]

승인 2011.05.23 19:09:42



지난해 열린 지적공사 유관기관 워크숍. (desk@jjan.kr)

대한지적공사는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 중 첫 번째로 입주부지를 매입했다. 이어 신청사 착공식도 이전기관 중 처음으로 올 상반기에 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총 498억원을 들여 총 2만9822㎡ 부지에 연면적 1만2856㎡, 지하1층·지상8층 규모로 들어선다. 대한지적공사의 착공식은 전북혁신도시 건설의 역사가 된다

▲ 지적 측량에서 정보 구축까지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토지행정의 신뢰강화, 재산권보호 및 최적의 국토 공간정보 구축·제공, 공간정보산업 진흥 등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공적영역을 수행하는 곳.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점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이는 설계시공을 위한 일반측량과는 구분된다.

지난 1938년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로 설립됐다. 이후 대한지적협회를 거쳐 1977년 현재의 대한지적공사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4년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됐고,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소속이 변경됐다.



대한지적공사가 지난해부터 자메이카 정부에서 발주한 500만 달러 규모의 토지행정관리사업을 2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desk@jjan.kr)

본사는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2실 2처 1단 10부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 전국에 12개 본부와 지적연구원, 지적연수원이 있으며 모두 3600 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11년 예산은 4770 여 억원이다.

▲ 개발도상국 등 해외로 진출

대한지적공사는 최근 들어 신기술 활용에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고유업무인 지적측량이나 지적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왔다. 하지만 이 외에도 보유한 기술과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해 범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우선 문화재 관리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 문화재의 입체정보를 취득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어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지하 동굴에 대해 고정밀 측량장비를 활용해 3차원 위치성곽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대한지적공사는 2006년 라오스에서 도로건설을 위한 지형측량을 시작으로, 2007년 베트남 박닌성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측량, 2008년에는 모로코 토지등록 시범사업, 지난해에는 아제르바이잔 지적제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150만 달러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는 ODA사업에서 벗어나 자메이카 정부에서 발주한 500만 달러 규모의

토지행정관리사업을 2년 예정으로 추진,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있다.

▲ 지역이미지 향상 효과 기대

대한지적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옴으로써 당장 인구유입과 지방세 수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직원 300여 명 등 400~500여 명이 이주해올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3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지적공사가 들어오는데 따른 파급효과는 지역이미지 향상이다. 우선 비인기 종목인 싸이클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유망선수 육성과 국민체육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싸이클의 주역인 장선재선수가 몸담고 있다.

여기에 측량업무 하나로 해외시장을 진출함으로써 국가이미지는 물론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갈수록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고, 지방세 납부액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지방세 수입이나 유입인구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날이 갈수록 몸집이 커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입인구나 지방세 수입도 덩달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9) 한국식품연구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98177>)

경제
경제일반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⑨한국식품연구원

국가식품산업 견인...혁신도시 입주맨 인력 400명·지방세 연간 2억 전망

구대식 | 9press@jjan.kr

+ - [icon] [icon] [icon]

승인 2011.05.30 21:07:07



한식연이 고등학생을 초청해 실시한 창의형 식품과학 문화교실에서 학생들이 연구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desk@jjan.kr)

한국식품연구원은 올 예산 530억3600만원의 절반이상인 341억1500만원이 연구사업비다. 이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식품연구원은 내년 10월 신청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3년 12월께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올 전망이다.

▲식품산업, 국가 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은 첨단 식품과학기술을 이용해 국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건강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건강국가를 실현하고자 지난 1988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어 1999년 1월 국무총리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 소속이 변경됐고, 2004년 10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8년 2

월에는 과학기술부 산하에서 지식경제부 산하로 소속이 바뀌었다.



지난해 10월 11일 부터 16일까지 한국식품연구원이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농산물 유통업체 및 관련 종사자 20명을 초청해 실시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유통을 위한 워크숍.

(desk@jjan.kr)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한 기능성 식품, 식품안전, 식품나노기술의 연구를 하며, 농수산업의 고도산업화를 위해 전통식품의 세계화에도 힘쓴다.

또한 국내·외의 우수한 대학, 연구소, 산업체와의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IT,NT, BT, ST 의·약학 등과의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첨단과학기술의 산실로써 국가 식품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주로 식품 기능성 신소재·신공정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식품 저장·유통·안전성 핵심기반기술 연구개발,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개발, 식품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술정책 수립의 지원 등을 한다.

▲연구에 연구로 승부 건다

명칭대로 연구업무가 주 업무다. 우선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 10대 기능성 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미래전략기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품기능소재의 발굴 및 증강 제어기술 개발, 기능성식품의 효능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무병장수를 위한 FR(food restriction)과 FC(food control) 시스템 개발 등을 한다.

이어 전통식품에 대한 과학적 우수성과 기능성을 밝혀 세계화에 주력하고, 수출상품화를 위해 전통발효식품의 명품화 및 세계화 기술 개발, 지역특화작물의 발굴 등 식품산업진흥 연구 분야에 힘쓰고 있다.

또 첨단가공기술 및 산업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식품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검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식품신소재 및 첨단가공식품개발 등 식품산업원천기술 연구 분야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식품인증제도(산업표준,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의 개발, 전통식품의 국제규격(CODEX)화와 국내식품규격, 식품기업 기술컨설팅 지원 등도 연구한다.

▲전북, 식품클러스터 완성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올 3월 이사회에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상정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됐다는 것. 이들은 오는 11월부터 신청사 설계에 들어간다. 이후 내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선 4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전해올 계획이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800명까지도 동반 이전해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3년 이후 소요인력이 510명으로 추정, 이주 인구는 더욱 늘 전망이다. 지방세 납부액은 연간 2억여 원이다.

하지만 식품연구원이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옴으로써 가장 파급효과는 전북도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이 완성되는 것. 그동안 전통방식을 고수해온 도내 식품분야가 첨단방식으로 탈바꿈하는 것.

특히 도내에는 익산지역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건립된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이 곳에 식품기업 145곳과 연구소 10곳을 유치해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ey)와 같은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hub)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들어옴으로써 전북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성미를 갖추게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역은 물론 국가 식품산업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0) 한국전기안전공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98922>)

경제
산업-기업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⑩한국전기안전공사

내년 2월 착공-2013년 6월 전북혁신도시 입주...인구유입 효과 1200명·지방세
연간 2억원 전망

구대식 | 9press@jjan.kr

승인 2011.06.06 18:46:36



기업의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 (desk@jjan.kr)

한마디로 전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곳.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과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남극 세종과학기지과 북한 개성공단 등 해외까지 안전진단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가 내후년 6월에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할 계획이다. 총 665억원을 들여 부지 5만1898㎡, 건물 2만70㎡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desk@jjan.kr)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자원부 산하의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 지난 1974년 6월 설립돼 정부조사기관으로 지정됐고, 이어 1975년 4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개칭되었으며, 1990년 4월 전기사업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개편됐다.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보급, 전기안전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검사 및 기술지원, 재난의 예방수습과 긴급구조 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밑에 현재 13개 지역본부와 47개 지사, 1개 출장소 등이 있다. 또 전기안전시험연구원, 안전인증센터가 운영된다.

지난 1995년 7월 18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00년 3월 15일 ISO 9002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1년 4월 28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민불편 해소에 주력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업무는 핵심주력기능과 주력기능지원 두 가지로 나뉜다. 핵심주력기능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와 점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며, 주력기능지원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이 해당된다.

이 속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출동 고충 처리 업무(Speed-call, Bussiness-call)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용 전기시설의 고장이나 정전 발생 시 국민 불편을 단 1초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응급조치 시스템 'Speed-call'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등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을 도와주는 'Speed-call'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 중심의 전기 설비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 조치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Bussiness-call'도 운영한다. 대상은 대형사업장, 병원, 공공기관, 제조업체 등 대용량 기업고객이다.

▲1200명까지 동반 이주할 듯

한국전기안전공사에는 모두 2734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사 밑에 13개 지역본부와 47개 지사, 1개 출장소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본사에 296명, 사업소에 2438명이 소속돼 있다. 당장 300여 명의 본사 직원과 가족(직원 당 3명)들이 동반 이주해올 경우 12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 또 연간 2억원 정도의 지방세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활발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옴으로써 특히, 지역 녹색산업에 활로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사업이 새만금 등에 펼쳐지는 녹색성장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KESCO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책임지며 고객만족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http://www.i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00058>)

경제
산업·기업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⑩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문화도시, 출판·독서문화 새 바람 기대

구대식 | 9press@ijan.kr

승인 2011.06.15 18:12:3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전북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기반 문화사업 실무과정 모습. (desk@ijan.kr)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여기에 출판과 독서의 진흥에도 애쓰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옴으로써 전북도가 출판과 독서 부문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위원회 형태의 작은 기관이어서 별도의 신축 청사가 아닌, 다른 건물을 임차해 들어오게 된다.

▲ 간행물 유해성 심의 법정기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기구. 지난 1970년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 한국잡지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로 통합됐으며, 지난 1997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발족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책나라 여행 행사 모습. (desk@jjan.kr)

이후 정부정책과 출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 특히 2007년에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단행해 출판 산업 발전과 독서문화진흥 기관으로 변모했으며, 이제는 정부의 출판 산업 발전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배포사업 및 우수저작 출판지원사업, 1인 출판사 지원사업 등 대한민국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진흥사업을 통해 중소출판사에 인턴 지원금을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출판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수 학술도서 386종을 선정해 공공도서관 등 970곳에, 우수 교양도서 405종을 선정해 도서벽지학교 등 1889곳에 배포했다. 숲을 살리는 녹색출판 캠페인과 위원회 발간물 '책&(책앤)'을 발행하는 등 출판문화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 2012년을 '국민독서의 해'로 지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 진흥사업과 독서 진흥사업, 심의 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한다. 출판 진흥사업은 우리나라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말 그대로 독서를 진흥하는 사업이며, 독서 진흥사업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국민 독서의 해' 추진, 병영 및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방과 후 독서 지도교사 파견, 책나라 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을 '국민독서의 해'로 지정, 국민의 독서력 향상과 독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려고 한다. 독서정보통합센터인 '독서인(www.read-kpec.or.kr)'을 운영, 1만4800여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독서관련 일정, 독서 칼럼, 해외 독서사례 및 기관별 추천도서 등의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 구현에 힘쓰고 있다.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를 통해 간행물 유통질서 건전화를 추구하고 있다. 각종 도서, 만화, 정기간행물, 전자출판물 등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 전북, 출판 독서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회 규모 상 별도로 건축물을 신축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물을 임차해 들어오게 된다. 이들은 총 55억원을 들여 전북 혁신도시 내에 3441㎡ 규모의 청사를 임차해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양한 출판과 독서문화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이 들어섬으로써 전북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출판·독서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으로 된다. 당장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도민의 독서의 생활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증가도 예상된다. 당장 서울 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47명이 동반 이주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직원 한 명당 딸린 가족을 3명으로 계산할 때 약 200명이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관계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들어옴으로써 전북혁신도시의 활성화는 물론 전북도민들의 정서함양, 나아가 전북도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끝)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부록 5) 지역발전 선도 인재육성 서약서 문안

지식경제부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인재육성 서약서

지식경제부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서약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하나, 지식경제부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기술인재가 지역 내에서 육성·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지식경제부는 지역 산업·인재 육성 정책을 통해 지방자립형 기술인재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하나,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의 대학 등과 협력하여 관련 분야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기술협력이 지역산업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지식경제부	장 관 홍 석 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 장 이 기 섭
대한석탄공사	사 장 김 현 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 경 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장 호 남	한국서부발전(주)	사 장 김 문 덕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허 중 수	한국석유공사	사 장 서 문 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 장 박 수 용	한국세라믹기술원	원 장 김 민
한국가스공사	사 장 주 강 수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장 김 균 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 장 전 대 천	한국식품연구원	원 장 윤 석 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 장 고 정 식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장 박 철 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권 혁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남 호 기
한국남동발전(주)	사 장 장 도 수	한국전력공사	시장 직무대행 조 인 국
한국남부발전(주)	사 장 이 상 호	한국전력기술(주)	사 장 안 승 규
한국동서발전(주)	사 장 장 주 옥	한국중부발전(주)	사 장 최 평 락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송 명 재	한전KDN(주)	사 장 김 병 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 장 남 궁 민	한전KPS(주)	사 장 태 성 은

Jthink 2013-PR-05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발행인 | 김경섭

발행일 | 2013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번지
(효자동3가 1052-1)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081-9 9335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